력사가 전하는

겨레사랑이야기

평 양 출 판 사
주체108(2019)년

머 리 말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이 시작된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구한 그 나날에 분렬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불행과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우리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겨레가 당하는 비극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절세의 위인들께서는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어버이심정으로 남녘동포들에게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민족분렬사와 더불어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겨레사랑의 력사를 한권의 책으로 다 엮을수는 없는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 전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도 독자들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 열렬한 동포애를 가슴후덥게 새겨안을수 있으리라.

그 고귀한 사랑과 은정을 가슴속에 새겨안고 온 겨레가 너도나도 통일성업에 떨쳐나선다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것이다.

편집부는 절세의 위인들께서 남녘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지가지 전설같은 이야기들중에 그 일부를 묶어본다.

차　례

1

구호물자로 된 전리품 ……………………………………8
사랑의 생명수 ……………………………………………11
민주학원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15
은정어린 친필편지도 보내주시며 ……………………22
친혈육의 정으로 …………………………………………27
몸소 환갑상도 차려주시며 ……………………………31
은혜로운 사랑은 한 어학자에게도 …………………37
부부대의원이라고 불러주시며 ………………………45
남녘소녀에게 베푸신 사랑 ……………………………50
은정어린 팥밥 ……………………………………………52
의거장병들에게 베푸신 은정 …………………………55
한 기업가에게 돌려주신 믿음 ………………………62

2

새벽으로 정하신 공격개시시간 ………………………68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도록 ………………………………70
보람찬 새 생활을 시작하도록 …………………………73
따사로운 해빛은 해방지역 농민들에게도 …………77

서울시민들의 땔감까지 걱정하시여 ……………………82
남녘의 한 농민에게 남기신 친필 …………………… 86
중대조치도 취해주시며 ……………………………92
전화의 나날에 마련해주신 환갑연 ……………………99

3

한 공화국영웅에게 돌려주신 은정 ……………………108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113
몸소 학부형이 되시여 ………………………………117
수풍호가 전하는 사연…………………………………125
뜨거운 은정은 재북인사들에게도………………… 131
명태떼를 두시고서도 …………………………………136
내각결정으로 취해주신 동포애적조치 ………………137
남녘어민들의 감동……………………………………140

4

원산앞바다에서 ………………………………………144
수시로 알아보신 기상통보 …………………………148
전례없는 구호조치……………………………………151
특대받은 신자…………………………………………157
각별한 은총……………………………………………159

남녘음악가들이 받아안은 은정 ··························162
숭고한 의리의 세계 ·································165

5

겨레의 불행을 두고 마음쓰시며 ·······················172
중대한 행사에 앞서 ································174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선구자로·····················179
우리 민족끼리의 눈을 틔워주시며 ····················187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남녘의 옥동녀 ··················195
생의 활력을 부어주시여 ····························200
칠보산송이버섯전설 ································203
한밤중의 특별렬차··································208
몸소 열어주신 《아리랑》관람길 ·······················215
북과 남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220

6

현대일가와의 인연을 귀중히 여기시고····················226
고결한 의리심을 지니시고····························231
조전과 화환에 어린 숭고한 동포애 ····················239

1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후 외세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그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남녘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뜨거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들의 심금을 한없이 울려주며 길이길이 전해지고있다.

구호물자로 된 전리품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본왜왕의 항복선언이 발표되였다. 드디여 4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고 조선인민은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의 날인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해방의 날을 맞이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삼천리강토는 환희에 휩싸이고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오던 인민들은 해방된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껏 일하며 잘살아보려는 소박한 꿈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장장 20성상 강도 일제와의 피어린 혈전끝에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은 되였지만 미군정하에서 짓눌려 사는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려고 늘 마음쓰시였다.

해방직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이께로 달려가는 일군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새로운 과업을 주시려고 불러주실가. …

일군은 긴장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도

착하였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묻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일제놈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잘 보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접하는 순간 일군은 심한 가책을 받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일제침략군놈들이 쓰던 창고와 병영, 역전들에는 옷, 천, 모포 등 전리품들이 적지 않게 쌓여있었으나 그것을 수습할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재산으로 된 그 전리품들을 빨리 다 모아야겠다고 다시금 일깨워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전리품들을 다 모아놓으니 그 량은 정말 대단하였다.

며칠후 전리품들을 다 모아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하시면서 근심어린 안색을 지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이 전리품들을 남녁동포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는것이였다.

그 순간 일군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서로 얼굴들만 마주보았을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얼마 안되는 산업시설들마저도 일제놈들이

다 마사놓고 도망친 후여서 아직 북반부인민들에게도 천 한쪼박, 신발 한컬레가 매우 귀한 때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리품들을 다 모으라는 과업을 받았을 때 일군들은 그이께서 그것들을 생활이 펴이지 못한 북반부인민들에게 나누어주시려고 그러시는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녘동포들에게 전리품들을 보내주자고 하시는것이 아닌가.

사실 그이께서는 그 전리품들이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례질수 없으며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빈궁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부모의 슬하를 멀리 떠나 고생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남녘인민들의 신음소리를 절감하시며 이러한 은혜로운 동포애적조치를 취하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겨넣으며 남녘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깊은 은정과 동포애의 정에 머리를 숙이였다.

그리하여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차고넘치는 구호물자들은 곧 남녘땅에 가닿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구호물자들을 받아안은 남녘인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으며 북녘하늘을 우러러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사랑의 생명수

해방된 삼천리강산에 첫봄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되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이룩된 북반부의 벌들에서는 풍악소리 드높았고 난생처음 제땅에서 짓는 농사여서 농민들은 낮에 밤을 이어 시간가는줄 모르고 씨붙임준비에 바빴다.

하지만 38°선너머 지척에 바라보이는 남연백의 넓은 벌은 이와는 딴판이였다.

남연백벌에도 봄은 찾아와 논두렁에, 산기슭에 갖가지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건만 사람들은 찾아볼수 없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수 없었던것이였다.

원래 남연백벌의 농민들은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고있었다.

그런데 일제패망후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렬되면서 남연백벌로 흘러들던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물길을 저주로운 38°선이 끊어놓았던것이다.

밭은 남쪽에, 물은 북쪽에…

남연백벌 농민들은 저수지가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지을뿐 누구 하나 씨붙임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새들마저 지저귐을 멈춘듯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황량하기 그지없던 남연백벌로 별안간 물줄기가 사품치며 흘러들었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의 처지를 걱정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물을 남녘땅에 보내주도록 하신 것이였다.

그리하여 남연백벌의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생명수로 해방후의 첫 씨앗을 싹틔웠고 그 물로 모를 내였다.

사랑의 생명수를 한껏 들이키며 남연백벌이 한창 푸르러가고있던 1946년 여름 우리 나라의 중부지역에 례년에 없는 큰비가 내렸다. 이로 하여 구암저수지의 뚝이 무너지고 수문이 파괴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저수지복구공사를 다그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패망한 일제가 도망치면서 파괴한 경제와 문화시설도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도 빨리 안정시켜야 했으므로 자금과 자재, 로력이 매우 귀중한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부담을 치르더라도 저수지를 빨리 복구하여 남연백벌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수지복구에 당시 화페로 1 500여만원의 방대한 공사비와 900여t의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자재 그리고 2만여공수의 로력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저수지는 다음해 농사철전으로 완전복구되였으며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담은 구암과 례의저수지물은 또다시 남연백의 넓은 벌을 적시며 계속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기술자들과 관리원들을 배치하여 저수지들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관개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남연백벌 농민들이 물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은혜로운 동포애적조치는 남녘의 민심을 뜨겁게 달구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북에 대한 동경심이 날로 높아지는데 두려워난 미군정은 남연백벌 농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온갖 가렴잡세를 마구 들씌우는 한편 물을 받아쓰지 못하게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물길은 다시 끊어지고 그들앞에는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다.

생사기로에 놓이게 된 남연백벌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정상을 알려드리고 물을 보내주실것을 청원할 결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남연백벌 농민대표들은 1948년 5월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북으로 들어와 자기들의 소망이 담긴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올린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편지를 가지고 온 일군에게 놈들이 방해책동을 하고있지만 남연백벌 농민들에게 올해농사에 지장이 없게 물을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남연백벌 농민들에게 물을 보내주는 문제를 상정하시였으며 몸소 작성하신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55호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관개용수를 남조선

연백지방에 공급함에 관한 결정서

…

미군정이 남조선동포들과 남조선농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있으며 대책도 취하려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여 남조선동포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관개용수조절문제를 고의적으로 태공하며 속한 기일내에 관개용수사용료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려 하지 않고있으나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남조선동포들의 비참한 처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미군정측은 관개용수사용료에 관한 문제를 속한 기일내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있으나 남조선동포들의 …요청에 의하여 1948년

6월 27일부터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의 관개용수를 38이남 연백지방에 급수할것이다.

1948년 6월 2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6월 27일 수문이 열리자 관개용수가 사품치며 남으로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관개용수, 그것은 남연백벌 농민들만이 아닌 온 남녘땅인민들의 가슴에 흘러든 사랑의 생명수였다.

민주학원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1946년 3월 미군정청은 남조선에서 《무허가학교페쇄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진보적경향이 있는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학교들중에는 서울법정학교도 있었다.

서울법정학교는 해방전부터 사립전문학교로 운영되여왔다. 그러므로 이 학교에는 가난한 집 자식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8.15해방을 맞았을 때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의 희망은 누구보다도 컸었다.

그런데 미군정청의 조치로 하여 배움의 권리를 잃게 되자

법정학교 학생들은 맨 선참으로 학교페쇄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교페쇄를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과감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파쑈적인 학원탄압만행을 반대하여 서울의 각급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투쟁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 투쟁에 남조선 각지의 청년학생들이 적극 합류해나섰다. 청년학생들의 이러한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 《국립서울대학교안》이라는것이 조작되였고 8월 22일에는 그것이 법령으로 공포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안》의 목적은 《서울대학교》라는 간판밑에 한성대학 각 학부와 서울시안의 여러 전문학교들을 통합하고 군정청의 문교부장과 《국립서울대학교》 총장(미국인)의 추천으로 군정장관이 임명하는 리사들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리사회》를 통하여 학교가 운영되게 함으로써 미국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들을 완전히 틀어쥐고 교육사업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자는것이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

청년학생들의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쳤고 그것은 활화산처럼 터져올랐다.

법정학교 학생들은 《학교페쇄를 결사반대한다!》, 《학원의 자유를!》 등의 구호를 내걸고 련일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렸고 미군정청으로 몰려가 앉아버티기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서울의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적극

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더욱 확대되였다. 서울시안의 여러 대학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이 달려왔고 수많은 중학생들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미군정은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이 그 어떤 다른 학교에도 갈수 없게 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해나섰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500여명의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은 배움의 길을 잃게 되였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쏠리고있었다.

법정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은 련합총회를 열고 평양에 보낼 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대표들은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북행길에 올라 닷새만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때는 1946년 8월말이였다.

8월 30일 력사적인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를 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법정학교 교원, 학생대표들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휴식시간에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그들에게로 다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그들을 집무실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자리를 정해주시고 더운데 허물할것이 없으니 어서 웃옷을 벗으라고 하시며 부채까지 쥐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법정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법정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페쇄당하였을뿐아니라 일체 다른 학교에도 가지 못하도록 봉쇄당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서와 자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공부하고싶어하는 500여명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의 일치한 열망을 안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왔다고 절절하게 아뢰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우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이 북조선에 들어와 공부할것을 희망하고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북조선에 들어와서 공부하는것을 환영한다고, 지금 북조선에서도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공부할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다고, 우리는 평양에 종합대학을 창설하고 근로인민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한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빨리 서울에 나가 학생들을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이 서울에 나가 학생들을 인차 데려올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표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학생도 울고 교원도 눈물을 삼키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집과 부모를 두고 오는 남반부학생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을 잘 마련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러 서울로 가는 학생대표에게 필요한 문건을 해주고 려비도 넉넉히 주며 평양역장에게 말하여 서울로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도 해결해주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시며 시간이 없어서 오래 만나지 못하니 량해해달라고, 선생은 병치료를 잘하고 학생동무는 어려운 길을 무사히 다녀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존함이 새겨진 신임장과 함께 입학을 승인하는 문건 그리고 많은 려비를 가슴에 받아안은 학생대표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그날 밤으로 38°선을 넘어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에게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사실에 대하여 전해들은 서울법정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은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드디여 서울법정학교 학생, 교원들이 만난을 뚫고 38°선을 넘어섰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여러대의 자동차를 분계선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그날로 평양에 도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함께 온 학생들모두가 건강한가, 도중에 다른 일은 없었는가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몇명의 학생들이 38° 선을 넘다가 체포되여 아직 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이 걱정되시여 안색을 흐리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자기 소원대로 북반부에 들어와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으니 공부를 잘해서 새 조국건설의 훌륭한 역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떤 학과들을 지망하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이들이 과학의 여러 부문을 깊이 연구하여 새 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교원대학(당시)에 나뉘여 입학하였다. 얼마후에는 체포되였던 학생들도 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대학입학의 소원을 풀게 되였다.

학생들과 함께 온 교원들도 대학들에서 교편을 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농민들의 애국미로 종합대학을 세울 때 북반부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만 받아 공부시키자는것이 아니였다고 하시며 여기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의 아들딸들도 데려다가 공부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온 학생들의 이부자리까지 손수 만져보시고 솜도 더 두툼히 넣어주고 생일도 크게 차려주어 집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맏누이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1948년 새해를 앞두고서는 그들에게 친히 새해선물도 보내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장학금제도를 내왔을 때에도 남조선에서 온 학생들이 선참으로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깊은 관심속에서 남조선에서 온 청년학생들은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할 때에도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주시였다.

1949년 여름 어느 한 학교에서 진행된 졸업식에 참석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배잔을 올리는 교원이 몇년전 서울법정학교에서 들어온 학생이였음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데려오

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상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그후 이들은 여러 부문의 유능한 일군들로 자라 나라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헌신하였다.

은정어린 친필편지도 보내주시며

해방후 어느날이였다.

서울에 있는 미군정청의 한 방에서는 허헌선생이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인 하지를 상대로 책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면서 싸우고있었다.

허헌선생으로 말하면 해방전 변호사로서 조선의 혁명가들을 자진하여 무료로 변호하면서 법정투쟁도 벌렸고 1927년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으로 출현한 통일전선조직인 신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여 반일애국력량의 결속을 위해 분투하기도 하였다. 1937년 6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이후부터는 **김일성**장군 항일유격대의 무장투쟁자료들을 수집하여 인민들에게 알려주며 국내에서 애국적인 반일지하운동도 벌리였다. 이로 하여 그는 변호사자격도 박탈당하고 여러차례 감옥살이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이 되자 허헌선생은 서울에서 홍명희, 려운형, 최일천, 최원택, 백남운 등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장군환영준

비위원회를 결성할것을 발기하였으며 최일천선생이 집필한 도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발행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그 당시 허헌선생은 려운형선생의 권고로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맡아하면서 인민위원회를 꾸리는 일에 정력을 기울이고있었다.

이렇듯 남조선정계에서 명망높은 허헌선생을 미군정청에 불러다놓은 하지는 일제의 감옥에서 얻은 병을 걱정해주는듯이 치료문제를 놓고 운운하다가 그에게 인민위원회를 해산할것과 리승만과 손잡고 미군정에 협력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하지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면서 그에게 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라, 조선은 해방국이니 민주주의적 발전을 도모하라, 인민위원회를 해산할것이 아니라 인정하라, 미군정은 정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4가지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견결히 맞섰다.

자기가 목적한바를 이루지 못한 하지는 그후에도 졸개들을 보내여 허헌선생을 회유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은 단호히 거절하고 만나주지조차 않았다.

남조선정국이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시국이 혼란되여가는것을 보며 한탄하고있던 허헌선생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하루속히 서울에 나오시여 혼란된 사태를 바로잡아주시고 나라와 겨레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실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올리게 되였다.

허헌선생의 편지를 받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20일 친히 그에게 회답편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친서는 허헌선생에게 있어서 캄캄한 어둠속에서 밝아오는 려명을 맞이하는것과 같은 격정과 환희를 안겨준 태양의 빛발이 되였다. 갈피를 잡을수 없게 뒤엉켰던 실마리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앞이 환히 트이는것만 같았다.

선생은 즉시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허헌선생의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가 앓지 말고 건강하여 일할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2월 허헌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평양에 온 선생의 부인을 만나시였을 때 선생이 이제는 퍽 년로하여 손자들이나 보면서 쉬여야겠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여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있다고 선생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허헌선생은 할 일이 많으신분인데 건강하셔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의 병환이 빨리 낫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

겠다고, 선생님의 건강회복에 많은 힘을 넣어주기 바란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자리를 같이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도 부인에게 장군님께서 허헌선생의 건강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계신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말씀대로 허헌선생의 건강을 잘 돌봐드리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1946년 8월 허헌선생이 38° 선을 넘어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한 산길을 타고 오느라고 피곤해할 그를 생각하시고 미리 사람을 보내시여 충분히 휴식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몸소 휴식장소에까지 나가시여 만나주시였다.

또한 다음해인 1947년 8월에도 친필편지와 함께 선생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해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정세가 악화되고 허헌선생을 모해하려는 놈들의 책동으로 선생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자 그를 평양에 데려오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허헌선생은 1947년 12월 중순 서울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다.

허헌선생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로한분이 먼길을 오느라고 피곤하겠는데 푹 쉬도록 잘 돌봐드리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다음날 허헌선생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다고, 병세는 어떤가고 다정히 물으시며 한해 남짓한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졌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헌선생에게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병치료에 전념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으며 가족들이 곁에 있어야 병치료도 더 잘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선생의 가족들을 데려올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허헌선생의 온 가족이 10여년만에 한집에 모여 살림을 펴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의 자식들의 교육문제에까지 마음을 쓰시며 해당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1949년 6월 11일(음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허헌선생의 집을 찾으시여 생일을 맞는 선생을 축하해주시고 생일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 있었기에 허헌선생은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 성원 등의 중임을 맡고 새 조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후대교육을 위하여 헌신분투할수 있었다.

친혈육의 정으로

한겨울의 맵짠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던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조선인민당 당수 려운형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려운형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되자 《자, 저의 집에 가서 소찬이라도 같이 드십시다.》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 온 심혼이 끌리였던 려운형선생은 몹시 아쉬운 표정으로 따라일어서며 말씀드리였다.

《저는 려관으로 가겠습니다.》

《려관만 못하겠지만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 집에 온 손님을 려관에 보내는 법이라고야 우리 나라에 없는줄을 선생도 아시지 않습니까!…》

초면인 자기를 친동기처럼 대해주시는데 마음이 흥그러워진 려운형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즐거운 웃음을 터쳤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댁으로 가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방안으로 안내하시는것이였다.

사실 려운형선생은 위대한 수령님 댁으로 가면서 김정숙녀사가 어떤분이실가고 머리속에 많이 그려보았다. 총을 잡고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우신 녀장군이시니만치 아마도 무관다운 위엄이 있는분이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녀사를 대할 그의 마음도 자못 근엄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였다.

첫 대면에서도 그 인자하심과 소박하심이 그대로 안겨드는 녀사의 고결하신 성품,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정화시켜주는 자애에 넘치신 밝은 웃음, 정말 초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든 친혈육을 맞아주시는것 같은 한없이 친근하고 부드러우신 그 음성…

굳어졌던 선생의 마음은 대번에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렸다.

이윽고 식사가 들어왔다.

자개도 박지 않은 보통밥상우에 색다른 찬도 없었다. 려운형선생은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그 인품에 매혹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한상에 마주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댁에 머물게 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려운형선생이 댁에 한달가까이 머무르는 기간 온갖 성의를 다하여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한없이 겸허하신 인민적풍모와 지극하신 정성에 탄복한 려운형선생은 서울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였고 김정숙녀사의 고상한 풍모를 널리 소개하였다.

어느날 려운형선생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때 려운형선생은 자기는 백두산이 낳은 청년장군, 조국을 해방하신 민족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흠모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 장군님께 대접하고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 우리 3천만 백성들이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있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조국이 나아갈 진로이라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장내에는 오래동안 폭풍같은 환호가 일어났다.

선생이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을 평양으로 서슴없이 떠나보낸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모심으로부터 우러나온것이였다.

려운형선생은 그해에 세차례나 평양을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한편 미군정과 리승만일당은 려운형선생이 평양에 다녀왔다는것을 알고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미 망국적인 《단정》조작의 씨나리오를 작성해놓고있던 놈들은 그것을 추진시키는데서 장애가 되고있는 선생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였다.

1947년 7월 19일 려운형선생은 서울 혜화동로타리에서 반

동놈들에 의하여 피살되였다.

그의 희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하시였다.

그처럼 믿음과 기대가 크셨던 려운형선생, 그가 영영 떠나갔단 말인가. 그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다시는 오지 못할 길을 갔단 말인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려운형선생에 대한 추도회를 조직하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려운형선생에 대한 학살만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놈들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도식조직과 함께 추도문과 호소문에 담을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1947년 7월 21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1돐 기념대회에서 려운형선생추도회가 진행되였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그의 희생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두고두고 추억하시며 통일의 선각자로,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오랜 세월을 두고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몸소 환갑상도 차려주시며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들어온 홍명희선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남아서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사업하고있었다.

주체37(1948)년 6월 29일 홍명희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생을 자신의 댁으로 모셔오라고 보내신 승용차를 맞게 되였다.

선생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현관문밖에까지 나오시여 선생을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홍명희선생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오늘이 바로 선생님의 환갑날이여서 환갑연을 차렸다고 하시였다.

홍명희선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환갑이라니? 그러니 오늘이 나의 생일이란 말인가?)

그러고보니 그날이 바로 음력 5월 23일, 바로 자기의 생일날이였다.

홍명희선생은 구습대로 늘 음력으로 자기 생일을 쇠군 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6월이기도 하고 7월로 넘어가기도 하여 가족들은 물론 자신도 명심하지 않으면 넘겨보내기가 십

상이였다.

더우기 집을 떠나온 몸으로서 환갑상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자기의 생일을 아시고 친히 저택에서 환갑상까지 차려주시다니?!…

홍명희선생은 너무나도 벅찬 감격에 휩싸여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과 녀사를 따라 방안에 이르니 거기에는 여러가지 음식들을 푸짐히 차린 환갑상이 놓여있었고 여러명의 항일투사들과 일군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홍명희선생의 한팔을 잡으시고 환갑상앞으로 이끄시며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였다.

《장군님!…》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선생의 눈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자신의 탄생일에는 김정숙녀사께서와 항일투사들이 차려드린 지성어린 생신상까지 받지 않으시였던 장군님께서 오늘은 이 늙은이의 생일을 헤아리시여 성대한 환갑연을 베풀어주시다니…

그는 환갑상에 마주앉는 순간 참말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환갑상에는 신통히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있는것이 아닌가.

극진한 지성이 어려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홍명희선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내 식성까지 이처럼 세심히 알아내셨을가?…

홍명희선생의 환갑상에는 참으로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얼마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날 저녁식사를 하시다가 김정숙녀사께 홍명희선생이 가족들을 남조선에 두고 들어와 객지생활을 하는데 그의 환갑날에는 환갑상을 차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서울음식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저으기 걱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계시던 녀사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음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물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사의 말씀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환갑상을 잘 차려 혼자 생활하는 선생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다음날부터 서울음식법과 례법을 알만 한 사람들을 찾으시던중 한 일군의 안해가 서울음식만드는 법을 잘 알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그에게서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환갑상을 준비해나가시였다.

녀사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일군들을 통해서 홍명희

선생의 식성까지도 알아오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선생이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녀사께서는 모든 음식들을 손수 정성껏 만드시였다.

여러날이나 품을 들여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로 환갑상을 차려놓으니 참말로 요란하였다.

보통 환갑상에 오르는 음식들 이외에 서울사람들의 환갑상에 놓는 음식들과 더우기 홍명희선생이 좋아하는 갓나물, 김치, 수정과, 약과, 약밥, 포육, 깍두기까지 올려놓으니 실로 처음 보는 환갑상으로 되였다.

홍명희선생을 크나큰 격정에 잠기게 한 환갑상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다심한 손길에 의하여 마련되였던것이다.

사연깊은 환갑상에 마주앉아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무엇이라 드릴 말씀을 찾지 못하고있는 홍명희선생에게 김정숙녀사께서는 정중히 례의를 표시하시고나서 환갑상이 변변치 못하다고, 그저 성의로 아시고 많이 들어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독립과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다하시는 선생님의 환갑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며 선생의 잔에 친히 술을 부어주시였다.

홍명희선생은 술잔을 받아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 아무

련 한 일도 없는 저를 장군님과 녀사께서 이처럼 환대해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일가친척들이 차려주는 큰상을 받은들 어찌 오늘의 이 영광에 비길수 있겠습니까!》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는 자기는 원래 술을 마실줄 모르지만 온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우러러받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술이니 마시겠다고 하면서 잔을 비웠다.

이번에는 김정숙녀사께서 그에게 술을 부어드리였다.

홍명희선생은 무척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녀사를 바라보며 《나는 서울에서 소문난 음식점들은 다 가보았지만 녀사님께서 여기에 차려주신 음식들은 서울장안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들입니다. 참말로 작식솜씨가 대단하십니다.》라고 자기의 진심을 말씀드렸다.

몸소 환갑상을 차려주신지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 있던 홍명희선생의 가족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선생네 가족들이 20여명이나 되니 웬만한 집은 좁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저택을 내주시였다.

이사하던 날 김정숙녀사께서는 빈몸으로 평양에 온 홍명희선생의 가족들을 위하여 댁에서 쓰시던 가구들과 지어는 어리신 자제분께서 타시던 세발자전거까지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되였을 때 홍명희선생에

게 내각부수상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홍명희선생은 그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쳐 일하다가 1968년에 생을 마쳤다.

그는 생전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내가 나서 산 기간은 80년이지만 위대한 수령님 슬하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산것은 20년밖에 안된다. 이제 200년을 더 산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어찌 다 보답할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고 충정을 다하여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81년에 선생에 대한 기사를 《로동신문》에 크게 내도록 하시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우관이 새로 꾸려졌을 때에는 홍명희선생의 사진도 전시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홍명희선생의 자손들에게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이미 세상이 다 아는바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홍명희선생의 아들인 홍기문선생에게 나라의 재보인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사업을 맡겨주시고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으며 귀중한 보약들도 보내주시여 건강한 몸으로 번역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해주시였다.

홍명희선생의 다른 자손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믿음직한 일군들로 성장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명희선생과 그 일가에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지극한 혈육의 사랑이였다.

은혜로운 사랑은 한 어학자에게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분렬위기를 극복하고 통일독립된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려는 일념으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소집을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4월 친히 리극로선생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시였다.

리극로선생은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수난의 시기에 의분을 안고 반일의병투쟁에도 참가했고 《을사5조약》의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 국제적인 회합에도 찾아갔었다.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외우면서 축배잔을 들기도 하였던 그는 일제식민지통치가 더욱 악랄해지던 때에 모국어를 지켜내려는 마음으로 애국적인 학술단체를 조직하는데 참가한것이 《죄》가 되여 감옥살이를 하였다. 8.15해방과 함께 일제의 감옥에서 풀려

나온 후에는 서울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조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46년에는 량심적인 학자들과 체육인들, 지식인들을 망라한 조선건민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부터는 민주독립당, 민족자주련맹의 요직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여 나라의 분렬을 막기 위해 힘써온 애국인사였다.

뜻밖에도 하얀 비단천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초청장을 받아안은 리극로선생의 감격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초청장을 품에 깊숙이 간직한 선생은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떠날 결심을 표명하였다. 을사년과 경술년의 국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따라야 한다는것이 리극로선생의 신념이였고 자세였던것이다.

선생은 하루속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열망을 안고 서울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일행이 38°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무척 반가와하시며 일군들에게 조국분렬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사선을 헤쳐온 리극로선생일행을 평양으로 잘 안내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일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일

군의 안내로 아무런 불편없이 평양에 도착하게 되였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이 평양에 체류하면서 여러 행사들에도 참가하고 공장, 기업소, 학교 등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 생활이 약동하는 북조선의 현실을 참관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은 남북련석회의지지 평양시민대회와 5.1절경축 군중시위를 보았으며 황해제철소(당시)를 비롯하여 공장과 농촌 등을 돌아보면서 인민적정치가 찬란히 펼쳐진 북반부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였다.

공장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땅의 주인이 된 농민, 봉건적유습을 박차고 사회활동에 떨쳐나선 녀성들…

그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을 보았다.

모든 산업시설들이 《적산》이란 명목아래 여지없이 파괴략탈당하여 숨죽어가는 남조선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참으로 위대한 현실을 보았다.

이 위대한 현실은 우리 민족이 완전자주독립할수 있으며 그 길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북조선이 걷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어느날 리극로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신흥의 기상이 넘치는 북에 와보니 더이상 어데도 가고싶은데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 여기 그대로 눌러앉아 민주건국에 몸을 바칠가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정이 어린 선생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잘 생각했다고, 선생이 북반부에 남는다면 할 일이 많다고, 함께 손잡고 민족문화도 건설하고 우수한 우리 나라 언어도 발전시키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은 응당 선생과 같은분들이 맡아주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장군님!…》

리극로선생은 너무도 감격하여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절한 소망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청을 쾌히 수락해주시며 함께 손잡고 새 조국건설을 해보자고 굳게 믿어주신것이다.

그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나이많은분들인데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하였기때문에 옷차림이 말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옷을 한벌씩 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리극로선생의 이름도 불러주시며 옷의 색갈과 모양은 그들의 년령과 취미에 맞게 해주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리극로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새옷과 함께 모자와 신발까지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를 두고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리극로선생이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동서해의 풍치수려한 명승지들에서 휴식하도록 다시금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이 명승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 두고 온 그의 가족들의 신상을 걱정하시여 그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긴급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리극로선생이 공화국의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그날 저녁이였다. 선생은 이 감동적인 소식을 안해에게 전하려고 편지를 쓰고있었다.

그런데 한 일군이 찾아오더니 빨리 려관으로 가자는것이였다.

려관에 도착하니 전혀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안해가 달려오는것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리극로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하신 사랑에 그만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1948년 10월 어느날 리극로선생과 가족들이 림시거처하고있는 숙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의 부인에게 리극로선생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도록 잘 돌봐드릴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이날 선생과 가족들의 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가 잡히면 리극로선생의 집도 한번 방문하고 자신의 댁에도 초청하겠다고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다정히 이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10월 31일 저녁 리극로선생과 부인을 몸소 저택으로 불러주시였다.

리극로선생부부가 저택에 도착하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정원에까지 나오시여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평양에 온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얼마전에 선생의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부부를 집에 초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에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부부를 위하여 저녁식사를 마련하였는데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많이 들라고 음식을 권하시면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해방전 반일독립군운동에 참가한것과 무송 백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사업을 한 사실, 5.30폭동에서 피해를 본 조선동포들을 위문구제하기 위한 신간회대표단 성원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활동한 사실 그리고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사실 등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애국적 활동이라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치하에 리극로선생은 감격을 금치 못해 눈굽을 적시였다.

그러는 선생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폭압이 더욱 강화되자 애국자로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와의 투쟁에서 물러서거나 투항변절하였지만 선생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공화국의 내각을 구성할 때 김책동무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이 선생에게 산업상의 중임을 맡기자고 제기하였지만 나는 선생을 무임소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임소상의 직

책을 가지면 선생이 남조선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묶어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입니다.》

《장군님의 믿음은 하늘같은데 제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해낼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리극로선생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그대로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 선생은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 명망이 높고 또 군중과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을 능히 해낼수 있다고 본다고 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 리극로선생이 해방전부터 활동하고있던 건민회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선어를 연구해왔고 또 현재 조선어문연구회사업을 맡아보고있는것만큼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데서 큰일을 할수 있다고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에 앞서 그들을 바래주실 때 리극로선생이 옥중에서 입은 상처로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치료를 잘 받아야 하겠다고, 부인도 건강에 특별히 류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당부를 받아안고 댁을 나서는 리극로선생은 밤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자고로 믿음과 정은 하늘을 이긴다고 하였거늘 내 오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하늘같은 믿음과 하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았으니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무엇인고.》

리극로선생은 공화국의 주요직책에서 활동하면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어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이룩하였다.

돌이켜보면 민족의 얼을 귀중히 여기는 한 인간의 애국의 마음을 보시고 공화국의 당당한 일군으로, 역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리극로선생이 누려온 모든 행복과 영광의 자양분이였다.

부부대의원이라고 불러주시며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북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중에는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된 강규찬, 고진히부부도 있었다.

해방전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 날품팔이로 떠돌아다니던 강규찬은 로동운동에 몸을 깊이 잠그었다가 여러차례에 걸쳐 일제경찰에 검거되였으며 나중에는 추방령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무렵에 그는 고진히와 가정을 이루었다.

8.15해방과 함께 강규찬은 제주도에 인민위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1948년에 들어서면서 나라의 분렬을 추구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배격하며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제주도인민들의 애국투쟁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후 그들부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커다란 영광을 지니고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참가한 제주도출신 부부대의원을 회의장 휴계실에서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싸우는 부부대의원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때부터 그들부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일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가 제주도에 두고 온 자식들때문에 마음쓰는것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자고, 고진희동무 혼자서는 데려오기 힘들테니 일군들도 함께 보내야겠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리하여 조국의 한끝 제주도에서 부모들을 그리며 눈물속에 살던 강규찬, 고진희부부의 자식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녀사께 강규찬, 고진히부부는 제주도에서 잘 싸우던 사람들인데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김정숙녀사께서는 그들의 집을 자주 찾으시여 살림살이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친정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아들의 병치료에 쓰라고 인삼과 닭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그들일가가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을 때에는 가장집물들과 새 이부자리며 쌀과 부식물까지 친히 보내주시는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고진히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유능한 일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녀사께서는 고진히에게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를 데리고 만경대혁명학원에도 나가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업에 평양시녀성들을 조직동원해야할 책임적인 과업도 그에게 맡겨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품속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그들은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자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대를 원호할 임무를 스스로 맡아안고 해방된 서울을 거쳐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을 뒤따르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들은 적후에서 유격투쟁을 벌리기 위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갔으며 전투과정에 고진히

는 적들에게 남편을 잃었다.

강규찬이 전사한 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변절자의 밀고로 고진히는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놈들은 그를 악착하게 고문하였다. 그의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부서졌다.

교형리들의 고문을 받고 독감방으로 끌려가던 그는 복도 량쪽의 감방들에서 숱한 눈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고진히는 허리를 꿋꿋이 펴고 뼈가 부서진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감방들을 둘러보며 주먹을 추켜들고 말하였다.

《동지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신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조국통일 만세!》

싸움터에서 제주도녀걸이라고 불리우던 변함없는 그 모습은 살기어린 감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감옥도 철창도 그를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악착한 고문도 그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최후를 결심한 고진히는 독감방 담벽에 손가락을 깨물어 한자한자 심장의 피로 글발을 새기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

그들이 희생된 때로부터 어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성업에 한생을 바친 강규찬, 고진희부부를 잊지 않고계시였다. 그들부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속에 공화국영웅칭호와 조국통일상을 수여받게 되였다.

1993년 1월 어느날 통일애국렬사유자녀들과 함께 그의 두 아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찬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1995년 8월 어느날 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규찬의 묘비뒤에 자그마하게 새겨진 안해인 고진희의 이름을 보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글을 비석 앞면에 같이 새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애국렬사릉의 묘비에는 강규찬, 고진희부부의 사진과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되였다.

통일애국을 그토록 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에 떠받들려 그들부부는 통일의 길에 한몸바친 부부렬사로 영생의 언덕우에 서게 되였다.

남녘소녀에게 베푸신 사랑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온 남조선대표들속에는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소녀가 끼워있었다.

그 소녀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한 녀성의 동생이였다.

그 소식은 곧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 전해졌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자 남조선에서 온 그 소녀를 꼭 만나봐야 하겠다고 하시며 소녀가 머물러있는 숙소를 찾으시였다.

남조선에서 온 그 소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녀사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소녀는 몹시 허약하였다. 한창 먹을 나이에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 그리고 여기저기 찢기고 다해진 옷…

차마 더는 그대로 바라볼수 없으신 녀사께서는 소녀에게로 다가가시여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피기없는 그애의 두손을 포근히 감싸쥐시였다.

《네가 정말 용케두 왔구나. …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녀사께서는 이어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몇살인가, 서울

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혼자 어떻게 지냈는가 등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소녀는 자기를 뜨겁게 안아주시는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애무해주시는 그 자애로운 품속에서 친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그런 따스한 체온과 숨결을 느꼈다.

그래서 얼른 얼굴을 쳐든 소녀는 녀사를 우러러보며 《엄마, 엄-마!》 하고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량어깨를 들먹이며 여직껏 참고참아오던 울음을 터쳤다.

잠시후 소녀는 들먹이는 어깨를 가까스로 진정하고 김정숙녀사께 말씀올렸다.

《어머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강하세요?

저의 언니가 인사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언니는 저를 평양으로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더 잘 싸워서 조국이 통일되는 날 **김일성**장군님을 뵙겠으니 이제 장군님품에 안기거든 이 언니의 마음까지 합쳐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김정숙녀사께서는 소녀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시다. 너는 참 훌륭한 언니를 두었구나. 네 언니의 인사를 장군님께 꼭 올리마.

우지 말아! 이제는 장군님품에 안겼으니 마음을 놓아라. …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그것이 장군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싸우는 언니를 돕는 일이다. …》

소녀는 그후 김정숙녀사께서 베풀어주시는 친어머니사랑속에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조국의 훌륭한 딸로 성장하였다.

은정어린 팥밥

밥 한그릇을 짓고 반찬 한가지를 만들어도 맛있게 먹도록 정성을 기울이는것이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친어머니의 뜨거운 정성으로 저택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음식상을 차리시였다.

특히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면 그 지성은 참말로 각별한것이였다.

주체37(1948)년 11월이였다.

어느날 저녁 남조선에서 들어온 로동자들인 계월백, 임진환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녕월탄광과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들어온 로동자대표들이였다.

그날 김정숙녀사께서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동

무들이 남조선으로 다시 떠난다기에 식사나 한끼 대접하자고 불렀다고 하시며 방안으로 안내하시였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녀사께서는 곧 음식상을 차려들여오시였다.

상우에는 뚜껑을 씌운 밥그릇과 두부탕, 김치, 나물 등 여러가지 식찬들이 놓여있었다. 이어 녀사께서는 국그릇을 그들앞에 놓아주시며 차린것은 없지만 어서 들라고 친근하게 권하시였다.

남조선로동자대표들은 너무나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왜 이러고만 있어요. 더 식기 전에 어서들 드십시오. 제 집처럼 생각하고 드세요.》

김정숙녀사의 권고에 밥그릇뚜껑을 여는 순간 그들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김이 피여오르는 팥밥이 그릇에 넘치게 담겨져있었다.

한 로동자가 녀사를 우러르며 말씀드렸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먹습니까!》

그러자 녀사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도 한그릇 못 제끼면 무슨 로동계급인가요. 사양말고 어서 드세요.》

그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 댁에서 일상 식생활이 얼마나 검소한가 하는것을 알았다면 그 음식을 들지 못하였을것이다.

보통 위대한 수령님의 음식상에는 조밥이며 수제비국이 오르는 때가 많았고 반찬도 그저 된장국에 김치나 부루, 쑥갓 같은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밥이 소화도 잘되고 맛있다고 하시며 달게 드시였고 녀사께서 수제비를 만들었다고 하시면 그것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하시며 맛있게 잡수시였다.

하기에 언젠가 저택에 들린 녀성항일투사는 김정숙녀사께 이제는 나라도 해방되고 조국에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장군님께 조밥에 된장국을 드리실수 있겠는가고 안타깝게 말씀올린적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는 이렇게 인민들과 꼭같이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도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자들이 찾아오면 희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성의껏 만들어 대접하시였다.

이날 녀사께서 지으신 그 팥밥도 요긴할 때 쓰려고 간수하시였던 팥으로 지은것이였다.

《팥은 밥도 좋지만 숭늉맛이 또 구수하고 별미랍니다.》

숭늉그릇을 두손으로 받아든 그들은 육친의 정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녀사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더욱 후더워졌다.

참말로 친어머니보다도 더 정성이 지극하신분이시다. 이처럼 덕망이 고결하신분을 그 어디에서 다시 찾을수 있으랴!

그들은 댁을 떠나면서도 김정숙녀사에 대한 경모의 마음으로 하여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의거장병들에게 베푸신 은정

1949년 5월 5일 새벽 남조선강원도 춘천에 본부를 둔 《국군》 6려단 8련대의 1대대와 2대대가 화천과 린제 두 지역에서 각각 동시에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였다.

강태무, 표무원이 인솔한 이 대대들로 말하면 당시 38°선에 배치된 《국군》 8련대의 주력부대들로서 미국회 하원 군사시찰단의 시찰대상으로 선정되여있었다.

하기에 국방장관을 비롯한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1949년 이른봄부터 직접 현지에서 《림전태세》를 《검열》한다, 《보강》한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단행된 두개 대대의 의거입북은 1949년 5월 중순 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국군》의 《전투태세》를 시찰확인하고 전면전쟁을 일으키려던 리승만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38°선을 넘어 공화국의 품,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 그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두 평양에 데려오도록 특별렬차도 보내고 환영사업도 잘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의거장병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철원에서는 그들을 환영하는 솔문을 만들고 성대한 환영대회를 열었으며 원산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환영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고원, 양덕, 순천 등 렬차가 정차하는 역마다에서도 많은 군중이 그들에게 꽃묶음을 안겨주고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평양에서도 성대한 환영대회가 열리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이들의 의거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밤새워 마련하신 진달래꽃다발을 두 대대장과 병사들에게 안겨주도록 하시고 몸소 환영연도에 나가시여 그들을 환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의거를 조선청년으로서 애국적인 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의거하여온 병사들가운데 앓는 사람은 없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또한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고싶어하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그들을 조선인민군에 편입시켜주시고 새 군복과 장구류, 생활필수품들도 일식으로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조선청년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그토록 치하해주시고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고싶어하던 소원까지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그들은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그 은정에 꼭 보답할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이의 은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거한 장병들속에 홍천과 춘천방향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헤아리시여 그들을 의거전에 주둔하고있던 춘천과 홍천에 내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적들의 모략선전에 의하여 북에 가서 다 죽은줄로만 알았던 자식들이 혈기왕성하고 름름한 인민군대가 되여 나타나자 부모형제들의 감격은 실로 그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그들은 거기에서 1주일간 머물며 가족, 친척, 친우들과 함께 지냈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각기 독립련대로 개편되였으며 강태무, 표무원은 련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고향마을을 해방한 부대장병들이 부모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을 때 강태무도 헤여진 후 한해나마 소식을 모르고있는 가족들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방을 도무지 찾을 길 없었다.

하여 그는 가족과의 상봉을 단념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초순의 어느날이였다.

강태무련대장은 전선지구경비사령부로 급히 올라오라는 명

령을 받게 되였다.

그가 전선지구경비사령부에 찾아가니 기다리고있던 한 군관이 반색을 하면서 그를 어느 한 집으로 데리고 가는것이였다.

영문을 모르고 방에 들어서던 그는 깜짝 놀라며 굳어지고말았다.

《아니, 당신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던 안해가 그를 마중하는것이였다.

한옆에서는 아들애가 세상모르게 자고있었다.

그는 감동이 하도 커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들먹이다가 안해의 두손을 덥석 그러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고 다우쳐물었다.

하지만 안해는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라고 겨우 말을 떼놓고는 목이 메여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를 데리고 온 그 지휘관이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서울이 해방되여 며칠 지난 어느날이였다.

전선지구경비사령부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태무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즈음 알아본데 의하면 그의 가족이 서울에 있을수 있다고 하니 동무들이 그의 가족을 꼭 찾아내야 하겠다고 교시

하시였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위원회일군들이 20여일간 애쓰던 끝에 그의 가족을 찾아내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안전한 곳에 집을 정해주고 잘 돌봐주며 전선에 나가있는 강태무에게 련락하여 서울에 들어와 가족들과 며칠간 즐겁게 휴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날의 상봉은 이렇게 마련된것이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이 안전한 지대인 평양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하겠다고, 그의 안해는 고생을 많이 한 녀성인데 사고없이 평양으로 데려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안전하게 오려면 마차 같은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친히 인민군군인들을 보내시여 호송조직까지 하도록 해주시였다.

강태무는 후날 안해가 보낸 편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정녕 그것은 강태무 하나만이 아닌 의거장병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이였다.

의거장병들은 전쟁 전기간 부대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

륭히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그들속에서는 여러명의 공화국 영웅들이 배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같은 사랑과 크나큰 은정속에서 강태무, 표무원은 전후에도 군복을 벗지 않고 복무의 나날을 계속 이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장령의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1954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표무원을 몸소 만나주시였으며 그가 군사학교과정을 마치는 동안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낄세라 만경대삼촌댁분들을 자주 보내시여 그를 친혈육의 정으로 살뜰히 돌봐주도록 하시였다.

1954년 7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던 도중 그 지역에서 조선인민군 려단장으로 복무하고있는 강태무를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의 일군들에게 강태무의 부대를 잘 방조해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무엇인가 더 기념으로 남기고싶어하시며 자신께서 현지지도의 나날에 타시던 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다.

이들이 받아안은 사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강태무, 표무원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을 **김일성**훈장수훈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생일상과 사랑의 선물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영웅대회와 전국로병대회때에는 주석단에 그들을 앉혀주시고 큰 대회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배려를 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6년 5월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일하도록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몸소 자신의 이름으로 된 화환도 보내주시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은정이 있었기에 강태무, 표무원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일수 있었다.

한 기업가에게 돌려주신 믿음

주체38(1949)년 6월 25일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가 열렸다.

북과 남의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각계층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에 한몸바칠 굳은 맹세를 안고 숭엄한 마음으로 개회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들중에는 남조선에서 온 기업가인 리종만선생도 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장을 쭉 둘러보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가운데 리종만선생이 왔으면 주석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리종만선생은 얼결에 몸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엉거주춤해 서있었다.

옆사람의 독촉을 받고서야 주석단에 올라와 인사를 드리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을 향하여 이분이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가지고 놈들과 잘 싸운 조선산업건설협의회 회장 리종만선생이라고 그를

소개하시고나서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옆자리에까지 앉게 된 리종만선생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다.

해방전 반일애국의 초지에서 많은 돈을 써가며 민족산업을 일떠세워보려고도 하고 민족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도 세우고 출판사도 경영해보았지만 일제에게 탄압당하고 절간으로 쫓겨갔던 리종만선생, 해방후 서울에 올라와 다시 산업계에 진출해보았으나 그 한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힌 선생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불민한 늙은이를 영광의 대회의 주석단에까지 불러주신것이 아닌가.

그는 꿈같은 현실에 어쩔줄을 몰랐다.

회의휴식시간에도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선생의 애국적지조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국토완정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선생과 같은 애국자들과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인품과 높으신 덕망에 매혹된 그는 평양에 남아 인생말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인생의 우여곡절속에 살아갈 기운마저 잃은듯 뿌옇게 흐려졌던 그의 눈은 생기를 띠며 반짝이고 젊었던 그 시절처럼 온몸에 생의 희열이 용솟음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종만선생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내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껏 일해보려는 그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는 그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것을 헤아리시고 내각간부학교(당시)에서 공부하도록 하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리종만선생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시였다.

일제때 광업부문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곳들을 탐사해본 그는 《장군님, 문제없습니다. 동도 많고 금도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북부지역의 어느 한곳에 20만t정도의 동광석이 매장되여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리하여 그곳에 대한 탐사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는데 어찌된셈인지 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로력과 자금만을 소비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동광석 20만t이 없다고 해도 동무들이 리종만선생에 대하여 절대로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리종만선생을 믿은것은 동광석때문이 아니라 그 선생의 애국적인 지조와 민족적인 량심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리종만선생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교시를 받아안은 리종만선생은 눈물을 머금었다. 백만금을 가진 자산가라고 하지만 항상 공허감속에 살아온 자신이였다.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아니였던것이다. 하여 조국을 위한 큰일을 맡게 되였을 때 선생의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던것이였다. 그런데 그 기쁨은 죄의식으로 바뀌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손해를 끼치게 한 자기를 탓할 대신 오히려 믿음을 주시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한 인간의 가치를 돈이나 광석으로 계산하지 않으시였다. 애국심에서 한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아보시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은 백만금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후날 리종만선생은 자기의 소유로 되여있던 대동광업주식회사청사를 공화국정부에 희사하였다. 제손으로 또박또박 박아쓴 《양도증서》를 내놓으며 자기의 마음속 진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저에게는 **김일성**장군님의 신임이면 그밖에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가장 귀중한 장군님의 신임을 받아안은 나에게는 재산도 귀하지 않으며 명예도 귀하지 않습니다.》

리종만선생은 그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다.

인생말년을 행복하게 지내던 그가 1977년 1월 92살에 로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자신께서 그를 잘 알고있다고, 장례를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와 함께 일하던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종만선생은 참 좋은분이였다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종만선생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국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간것이 가슴아픕니다.

리종만선생의 장례를 잘해줍시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내대신 동무가 가서 유가족들에게 나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여주시오. 그리고 나의 명의로 된 화환도 보내고 신문과 방송에 부고도 내도록 합시다. 리종만선생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정무원에서 맡아하도록 하고 모든 장례비용은 국가비용으로 합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은 고마움에 오열을 터뜨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믿음이 있어 리종만선생은 인생의 말년에 조국과 겨레를 위한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상수상자, 통일애국인사로 긍지로운 삶을 누릴수 있었다.

2

남녘겨레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변함이 없었다.

전화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녘의 동포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남녘겨레들속에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새벽으로 정하신 공격개시시간

1950년 6월 25일 민주건설의 노래소리 드높던 이 땅우에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전쟁이 일어난것이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남으로 진격하여 6월 27일 저녁에는 서울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총공격을 일시 중지할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인민군병사들과 지휘관들은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그처럼 긴장한 시각에 공격작전을 뒤로 미룬다는것은 보통 군사상식으로써는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 인민군련합부대들의 서울해방을 위한 전투조직과 준비에 빈틈이 없는가를 다시금 알아보시다가 공격개시시간을 두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서울해방전투의 승리를 앞당기는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것은 인민들의 생명재산이고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재보들이다.

수많은 인민들과 그들의 집과 재산이 있고 귀중한 민족문

화유산들이 있는 서울시내에 깊은 밤 포사격을 가하면 그로부터 산생될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할수 있겠는가.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에 대한 공격개시시간을 밤중이 아닌 6월 28일 새벽 5시로 정하시였다.

지휘관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가 금방 지난 때여서 5시면 날이 훤히 밝아 불의의 공격을 하기에는 불리했던것이다.

얼마후에야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격개시시간을 날이 밝은 새벽 5시로 정하신데는 서울시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은정이 담겨져있음을 알고 뜨거워지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무송현성전투시에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왜놈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소탕하도록 하시였고 부득이 야간전투를 벌려야 했던 보천보전투때에도 사랑하는 조국동포들에게 단 한점의 피해라도 입힐세라 사전에 주도세밀한 정찰을 앞세우심으로써 어둠속에서도 신통히도 일제의 통치기관들만 골라서 통쾌하게 답새기도록 하신 수령님이 아니시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한한 겨레사랑에 한없이 고무된 인민군전사들은 가렬처절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의 생명재산과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호하면서 저항하는 적들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서울해방전투는 그날 오전에 끝났다.

남녘겨레를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서울시민들의 생명재산도, 문화유적들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해방된 서울거리에는 자기들의 은혜로운 보호자, 구원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웨치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높이높이 울려퍼졌다.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도록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우리의 전권대표들이 나가있다고 하지만 해방된지 20일이 되도록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하니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서울로 갈 준비를 하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지금은 위험하니 안정이 될 때까지 좀더 계시다가 서울로 나가시자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서울도 우리 인민이 사는 곳이니 걱정할것은 없다고, 원래 자신께서는 백두산에서 싸울 때부터 한시바삐 남조선동포들을 만나보고싶었다고 하시였다.

그렇게 되여 그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야전형자동차가 서울을 향해 출발하게 되였다.

평양시의 중심부를 벗어난 차행렬은 남으로 뻗어간 도로를 따라 질풍같이 달렸다.

개성을 지나 삭아빠진 침목들을 타고넘으며 림진강철다리를 건넌 자동차행렬이 서울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미아리고개에 올라섰을 때는 다음날 새벽이였다.

차행렬은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중앙청으로 향하였다.

차가 도착하자 전선사령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집무실로 안내하였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작전회의를 진행하시였다.

회의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끝났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쉬실 사이도 없이 서울에 나와 활동하고있던 보건성의 책임일군을 만나시여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의 보건사업실태와 전상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해방지역의 보건사업에서는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는데 특히 보건일군이 모자라고 병원과 약품들이 부족한것이였다.

일군들이 여러모로 방도를 모색하며 애를 쓰고있었지만 난관을 타개할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해방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문

을 모두 여는 동시에 이르는 곳마다에 위생초소를 설치하며 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우선적으로 수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병원들에서도 일반환자를 군대와 함께 똑같이 치료해주되 그들에 대한 치료봉사는 반드시 무료로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남반부의 의술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 대학 의학부의 학생들도 차별하지 말고 대담하게 치료사업에 받아들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자기의 애국심과 기술을 남김없이 바치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오후 일군들을 만나시여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토지개혁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밤 자정이 퍼그나 지나서야 일군들과 헤여지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두고 심려하시며 종내 쉬지 못하시다가 날도 채 밝기 전에 몸소 청계천가의 판자집마을을 비롯한 시내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고 서울시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해방된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취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직접 만나주시여 그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그들이

참다운 새 삶을 누리도록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보람찬 새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체39(1950)년 7월 서울교외 농촌마을의 어느 한 집에는 며칠전까지 경무대건물에서 화부로 일하다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된 후 리승만《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은 모두 붙잡아다가 처벌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피난온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숨어있었다.

그러던 7월 중순 어느날 인민군군인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피할수 없는 운명에 처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들을 따라섰다.

군인들이 그를 데려간 곳은 그가 일하던 경무대건물이였다.

군인들은 그에게 수도시설이 고장났는데 그것을 좀 손질해달라고 하였다. 하여 그는 공구를 찾아들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노상 겁먹은 얼굴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가 작업을 끝내자 군인들이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를 식탁으로 이끄는것이였다.

그는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반동《정권》을 위하여 일해온 자기를 가두어놓고 며칠을 굶긴다 해도 할 말이 없을진대 이렇듯 정성스레 차린 식사까지 대접해주니 실로 놀랍기만 하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며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다하자 군인들이 자기를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것이였다.

그를 찾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해방된 서울에 나오시여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를 드시기 전에 그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그럼 그가 점심도 못 먹었겠다고 걱정하시면서 받으셨던 상을 그에게 갖다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그를 부르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너그러운 웃음을 담으시고 수도를 고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고향은 어디며 어떻게 되여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였는가, 식구는 몇이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물으심에 긴장감이 풀린 김재익은 자기는 평안북도 삭주가 고향인데 해방전에 고학을 하려고 서울로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로동판으로 돌아다니다가 경무대 화부노릇을 하게 되였는데 집에는 병약한 안해와 소년로동을 하는 두 아들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여기로 떠나올 때 처자들과 작별을 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놀라와하시며 그건 어째서 그랬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함께 있던 일군이 경무대에서 일하던 사람을 총을 멘 군인들이 데리러 갔으니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한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크게 소리내여 웃으시면서 그러니 지금 집에서는 틀림없이 잘못된줄로 알고있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마음을 놓으라고, 동무와 같은 로동자, 농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는 인민군대가 자기편 사람을 해칠수야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는 너무도 고마와 두눈을 껌벅이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동무도 앞으로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존대를 받으며 살게 될것이라고 다시금 일깨워주시고 가족들이 몹시 걱정하고있겠는데 오늘은 일찌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시였다.

그가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방에서 나간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께 있던 일군에게 그 동무가 입은 무명옷이 단벌옷 같으니 새옷을 한벌 주고 집에 식량과 땔나무

도 가져다주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다음날 뜻밖에도 다시 나타난 김재익은 낯익은 일군을 만나 그의 두손을 붙잡고 격정에 넘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분명 잘못되였을줄로만 안 자기가 새옷을 쭉 차려입고 식량과 땔나무까지 한가득 싣고 나타나니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도 감격하여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에 넘치여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정말이지 마흔여덟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밤새 잠 못 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심정을 알고도 남는 그 일군은 말하였다.

《감사의 인사는 **김일성**장군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니 **김일성**장군님이시라니요?》

《예, 동무가 어제 낮에 만나뵈왔던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순간 그는 너무도 놀라와 한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진정 그 눈물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자기에게 그토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경무대에서 일하던 다른 로동자들에게도 따사롭게 미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졌던 전공, 취사원, 청소부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다 찾아오도록 하시고 그들에게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간애와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김재익을 비롯한 경무대 로동자들은 다시 자기 일터에서 일하게 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인민군대를 따라 북행길에 올랐다.

따사로운 해빛은 해방지역 농민들에게도

남녘인민들도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존엄과 참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세에 의하여 조국강토가 분렬된 직후부터 결심하신것이였다.

전쟁이 일어난 초기 농림상의 직무를 수행하고있던 한 일군은 그때를 회상하여 이런 말을 남기였다.

《…나는 군복도 입지 않은 사민으로서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 자주 서있군 하였다. 해방된 남조선에서의 토지개혁실시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남조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이미 전쟁이 개시된 다음날이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내각청사 집무실에서 농림상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가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에로 넘어가 벌써 옹진지구와 남연백지방을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을 해방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반부의 해방지역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만큼 그에 따라 남반부의 해방된 지역들에서 토지개혁을 시급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림상은 인민군대가 반공격으로 넘어간것이 불과 하루전의 일인데 벌써 남연백지방이 해방되였다는것도 놀라왔지만 이 란리통에 해방지역에서 토지개혁과 같은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가져올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단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벅차오르는 흥분을 금치 못하며 가슴을 들먹이는 농림상에게 공화국남반부 해방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실태를 조사장악하는 사업부터 면밀히 잘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토지개혁실행세칙 같은것도 확정하며 해방지역에 파견할 토지개혁지도성원들도 준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림상에게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부상에게 맡기지 말고 상이 직접 책임지고 집행해야겠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듯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 제19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관한 법령초안을 토의하시였으며 그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에 대한 내각결정서초안을 제시하시였다.

주체39(1950)년 7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가 발포되였다.

해방된 남녘땅에서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령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이미 실시한 토지개혁법령과 같으면서도 해방된 남녘땅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여있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발포되자마자 각계각층 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 남조선도처에서는 토지개혁을 위한 군중대회, 궐기모임, 가창행진들이 진행되고 해설선전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모든 리들에 농촌위원회

가 조직되여 농민들을 토지개혁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토지개혁열풍이 세차게 일었다.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남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들에서 무상몰수한 토지들을 고용농민, 토지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하였다.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던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인민정권과 토지의 주인이 된 기쁨을 아뢰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농민들로부터 보내온 감사문과 결의문만도 무려 4 000여통에 달하였다.

해방된 남녘땅의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한 농민은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편지에서 이렇게 아뢰였다.

《**김일성**장군님, 옥체만강하시옵니까.

나라일이 어지럽사와 군무에 바쁘실줄 알면서도 너무 지중한 은덕을 입사와 삼가 이 글을 올리나이다.

저는 아비도 머슴이옵고 제 형도 머슴이옵고 또 두 동생놈도 머슴이였습니다.

저는 선키가 지게보다 조금 높은 때부터 지주에게 춘하추동 마소처럼 시달렸나이다.

지주는 저를 턱으로 부르고 매질로 부렸고 개와 마주앉아 밥을 먹게 했나이다.

우리 5부자가 한해에 짓는 농사가 2백섬도 더 된듯싶사오

나 저희들은 모두 굶어 부황이 나옵고 설, 추석에도 조상앞에 흰쌀밥 한사발 못 떠놓았나이다.

그러한 저에게 장군님이 땅을 주셨나이다.

익은 과일 쳐다보듯 오고가며 군침만 삼켜오던 그 탐스러운 문전옥답을 아름이 벌도록 주셨나이다.

이것이 꿈이오니까 생시오니까.

우리 집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옵고 밤을 새워두 좋기만 하옵니다.

살아생전에 이 은혜를 안 갚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오며 저의 늙은 어미는 노래처럼 장군님은덕을 칭송하고있사옵니다.

나는 너희들을 머슴으로 낳았는데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

로모는 이런 푸념을 하면서 벽우에 높이 모신 장군님영상에 조석으로 절을 하옵니다.

그러나 천번만번 절을 하고 또 절을 하온들 이 한량없는 은덕에 어찌 다 감사드릴수 있겠나이까.

아뢰일 말씀 많고많으나 장군님께 천세만세 축수를 드리옵고 이만 서툰 붓을 놓나이다.》

대대로 지주의 머슴살이를 하던 한 농민의 감사의 정이 어린 이 한장의 편지는 그대로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였다.

이것은 또한 당시 토지를 분여받은 남조선농가 126만 7 000여호의 수백만 농민들의 절절한 심정이였다.

하기에 남녘의 농민들은 리승만괴뢰정권하에서 지지리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자기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그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고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전선원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서울시민들의 땔감까지 걱정하시여

주체39(1950)년 8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긴급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온 일군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모여앉은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제부터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문제를 토의하자고 하시며 회의의정을 선언하시였다.

순간 회의참가자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서로 마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적아간에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 때 더구나 아직은 삼복더위가 한창인데 서울시민들의 겨울철땔나무문제가 론의될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사실 서울시민들에게 있어서 땔감문제는 식량문제 못지 않

은 심각한 문제였다.

서울은 주변의 산들 대부분이 나무가 없는 산들이여서 땔감을 다른 지역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여있었다.

그리하여 겨울에는 땔것이 없어 농짝이며 빨래방치 지어는 밥상까지 다 패때고도 모자라 얼어죽는 참상이 빈번히 빚어지군 하던 서울이였던것이다.

서울지역 인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인 때이지만 서울시민들의 겨울철땔나무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서울시민들은 해방후 5년동안 리승만통치하에서 일제때와 다름없는 고생살이를 하다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참다운 해방을 맞이하였다고, 우리는 서울시민들을 해방시켜주었으니만큼 그들의 생활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땔것을 해결할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서울은 대체로 10월 중순이면 추위가 시작되는데 적들이 패주하면서 철길과 탄광을 다 파괴하였으므로 석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것이니 통나무를 생산해서 보내주는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서울시의 인구와 세대수를 따져보면 겨울나이용으로 40만㎥의 통나무가 있어야 한다. 서울이 가까

운 태백산에서 나무를 하면 헐할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일을 벌리면 해방지역 인민들이 동원되여야 하겠는데 힘들더라도 북반부인민들의 손으로 나무를 해 보내주자. 소나무와 참나무가 많은 설악산에서 나무를 해서 한강을 리용하여 류벌하면 서울까지 헐하게 운반할수 있고 소나무와 참나무는 분한있고 불땀이 좋아서 때는 사람들이 좋아할것이다. …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채벌대책도 일일이 세워주시고 내각 림산국 일군을 현지로 파견하시였다.

그리하여 설악산일대에서는 때아닌 때 나무베기가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를 보장하는 사업이 전선에서 싸움을 하는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며 인민군대에 탄원한 수백명의 청장년들까지 벌목장에 보내주시였고 서울시인민위원회에서는 통나무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시민들에게 나누어줄수 있게 공급소들을 미리 조직하도록 빈틈없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극진한 관심속에 9월 하순에는 계획한 땔나무전량을 마련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악산에 파견되였던 림산국의 한 일군에게 장거리전화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략

적인 일시적후퇴를 조직한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이런 형편에서 베여놓은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무들을 몽땅 불태워버리겠다는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면 추위가 당장 시작되겠는데 땔나무가 없어 떨게 될 서울시민들이 걱정된다고 하시였다. 전류를 타고 멀리서 울려오는 그이의 심려어린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일군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그 엄혹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의 겨울나이용땔나무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를 토막내여 강물에 띄워 내려보내주면 인민들이 건져 쓸수 있을것이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많은 통나무들을 며칠내에 토막치자면 헐치 않겠는데 군인들을 동원시켜주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될 때 한강으로는 토막내여 불때기에 알맞춤하게 자른 통나무토막들이 떠내려오게 되였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땔것이 없어 고통을 겪던 서울지역의 인민들은 이런 뜻밖의 《횡재》를 하였다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못하여 설악산에 《구세주》가 있어 자기들을 보살펴준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있다.

남녘의 한 농민에게 남기신 친필

주체39(1950)년 8월초 어느날이였다.

해방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민들은 뜻밖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인민관광단을 무어 평양으로 가게 되였던것이다.

인민관광단의 평양방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반부해방지역 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직접 볼수 있게 견학을 조직하도록 할데 대하여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7월 하순 어느날 남반부해방지역 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직접 보면 우리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크게 감동될것이라고, 남반부해방지역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민관광단을 조직하여 그들이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직접 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문화인들을 망라한 170여명의 인민관광단 성원들이 공화국북반

부의 자랑찬 현실과 민주건설성과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하여 평양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국립영화촬영소(당시), 로동신문사를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교육문화기관들과 시주변의 농촌들을 돌아보았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을 이룩한 농민들, 로동자들이 주인이 되여 인민을 위하여 생산을 하고있는 공장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는 대학… 실로 말로만 들어오던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이 한창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고있던 8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에 온 남녘동포들이 보고싶으시여 귀중한 시간을 내신것이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인민관광단 성원들은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저마다 그이앞으로 달려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도중에 적비행기의 공습을 받았다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행중 누구도 다친 사람은 없으나 폭격때 헤여졌던 한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빨리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에 대하여 물어보시였다.

그는 서울에서 온 58살의 김치범이라는 농민이였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나 일제놈들의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뼈저리게 체험한 그는 1943년경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에 파견하신 항일혁명투사들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해방후에는 온 가족을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도록 한 애국농민이였다.

김치범농민의 지나온 생활경위에 대하여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보고싶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좀 기다려보자고 하시였다.

바로 그 시각에 김치범농민은 평양시의 어느 한 병원에 가 있었다. 적기의 폭격이 끝난 후 대오를 찾다가 폭격에 무너진 어느 한 건물안에서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게 된 그는 그애를 찾아내여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것이다.

김치범농민을 기다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종시 나타나지 않자 근심어린 어조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것을 보니 필경 무슨 일이 있는것 같다고,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이르시고는 그 농민이 오면 자신께서 따로 만나보시겠다고 하시였다.

순간 관광단성원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 와있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인 풍모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던바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한 농민의 일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놀라운 사실앞에서 그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큰것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광단성원들과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담화를 하시는 도중에도 여러차례 김치범농민이 왔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도 담화를 마치시자 또다시 한 일군에게 그가 도착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도착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농민의 신상에 무슨 일이 있는것이 아닌가고 걱정하시였다.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그 농민이 일행을 찾다가 숙소로 돌아간것 같다고 일군이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 농민을 래일 따로 만나보겠다고 하시였다.

그날 김치범농민은 안고 간 어린이를 병원에 맡겨놓은 후 같이 온 사람들을 찾아나섰다. 하지만 끝내 대오를 찾지 못하고말았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관광단성원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이야기를 듣고 몹시 서운해하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그이를 유독 자기만이 만나뵙지 못했다는 생각에 몹시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다음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두고 하신 은정깊은 교시를 전달받은 그는 방안에 모신 그이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장군님! 한갖 농사군에 지나지 않는 저 같은게 뭐길래 이다지도 마음쓰시며 극진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것입니까!…》라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다음날인 8월 16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 대한 지도로 일분일초가 새로우시였지만 이날 만경대고향집에서 김치범농민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그길로 만경대로 나가시였다.

그날 아침 김치범농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일군과 함께 만경대고향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날도 적기의 폭격으로 차가 팔동교를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11시가 다 돼서야 만경대고향집에 이르게 되였다.

만경대고향집앞에서는 터발에서 일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 그를 반겨맞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부터 만경대고향집에 오시여 할아버님과 함께 오전 10시가 지나도록 그가 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긴급한 사업이 제기되여 자리를 뜨시였던것이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그의 신상에 대하여 물으시고는 우리 장군이 얼마나 근심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나이많은 농민대표가 폭격에 길을 잃어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났다고, 장군은 떠나면서 나더러 대신하여 만나보라고 하였

다고 말씀하시였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그에게 장군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여 떠났으니 장군을 만난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나 나누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그의 지나온 생활경위를 들어주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김치범농민과 함께 겸상을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숭고한 은정이 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그는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장군님!》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사랑의 선물을 정히 쓰다듬고있는 그에게 장군이 이 선물을 나에게 부탁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완전자주독립을 성취할 때까지 잘 싸워달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들가운데는 귀중한 도서들도 있었다. 그가 두터운 한 서적을 들어 겉표지를 넘기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그이께서 쓰신 친필이 있었다.

《김치범동지에게 드립니다.

김 일 성》

위인의 미덕은 천하를 품어안는 넓은 도량, 귀천을 가리지 않는 웅심깊은 자애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녘의 한 농민을 동지라고 불러주시며 귀중한 친필까지 남겨주시였으니 그것은 정녕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절세의 위인의 고귀한 믿음과 사랑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믿음과 사랑을 안고 돌아간 김치범농민은 전선원호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떨쳐나섰으며 후에는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속에서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면서 참다운 삶을 누리였다.

중대조치도 취해주시며

1950년 9월에 들어서면서 정세는 급변하였다.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반공격에 의하여 전쟁을 개시한지 2개월 되나마나한 기간에 남반부의 대부분 지역을 내주고 락동강이남의 좁은 지역에 몰켰던 적들은 락동강계선에서 단말마적인 《총공세》를 감행하여나섰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인천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우리 나라 중부지역을 차단함으로써 전선형편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보려고 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

쟁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로 하여금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단행하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그때 급변하는 전국을 주시하며 긴장과 초조속에 날과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서울에 남아있던 남조선의 이전 정객들이였다.

인민군대의 서울입성을 환영하였으며 《정치인 및 <국회>의원협의회》를 결성하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리승만도당을 규탄하는 성명서, 담화,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전쟁승리를 위해 노력하였던 그들을 적들이 가만둘리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북으로 가자니 지난 기간 리승만통치기관에서 복무한 자기들을 북에서 어떻게 대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북행길을 선택하였다.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와 관련하여 서울에 남아있는 여러 정계 인사들의 신변안전문제를 두고 걱정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북행결심표명을 반갑게 받아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9월 어느날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그들의 입북을 안전하게 보장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군병력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써 서울일대에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거기에 있는 남조선 애국적정계인사들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이번에 애국인사들을 평양으로 데려올 때 서울에 있는 안재홍, 오하영선생을 비롯하여 입북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과 리승만도당에게 체포투옥되였던 전기 《국회》의 소장파의원들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그들은 한때 친미반공의 일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번에 입북하는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면서 남조선정계인사들이 평양으로 들어올 때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선생과 같은 이름있는 정치인들과 년로한분들은 다 고급승용차를 리용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적기의 폭격이 심하므로 자동차에 위장을 잘하고 밤에 떠나게 하며 예비자동차도 준비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남조선정계인사들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 그들에 대한 환영사업을 잘 조직해줄데 대하여서와 입북하는 남조선정계인사들에게 애국적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 그들이 후방지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줄데 대하여서도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날로 험악해지는 군사정치정세로 하여 사실 남조선정객들의 운명문제에는 관심도 돌리지 못하였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장군님뜻대로 남조선정객들을 안전하게 후퇴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받은 일군들이 남조선정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은정어린 교시를 그들에게 전달하였을 때 장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와 경의의 탄성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조소앙선생이 감격에 겨워 《이제는 림정계협상파를 비롯한 련공애국인사들이나 이남의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살게 되였소.》라고 말하자 좌중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은 정말 고마운분이십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 곳으로 어서 갑시다. 그래야 우리들은 살수 있소.》라는 웨침들이 터져나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자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다.

그들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

신 속에서도 일행이 무사히 왔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일일이 알아보시고 평양시교외의 풍치좋은 곳에 숙소까지 친히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추석날에는 그들이 객지에서 추석을 맞으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겠는가고 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잘 위로해드리고 연회도 차려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들이 받은 사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자강도로 떠나는 그들을 위하여 특별렬차를 내주시였고 기차길이 없는 곳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가게 해주시였으며 그들이 들리는 마을들에서 따뜻한 환대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남조선정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한것은 10월 21일이였다. 거기에는 벌써 천험의 요새인 깊은 골안에 여러동의 숙소와 식당, 오락실, 진료소 등이 준비되여있었다.

숙소에 들어선 그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한자리에 굳어졌다. 따뜻한 온돌방에는 두툼한 이불과 고급담요로부터 치솔과 바늘에 이르기까지 일체 생활필수품들이 다 갖추어져있었던것이다.

원래 그들이 들 숙소에는 침대를 놓기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이든분들에게는 침대보다 온

돌방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장판을 잘하고 불을 뜨뜻이 때서 로인들이 아무때나 누워 허리를 지질수 있게 해주라고 당부하시였다는것이였다.

윤기나는 장판과 무늬고운 양단이불, 조선베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스며있는 그이의 다심하고 자애깊은 사랑은 끝내 그들을 울리였다.

일행이 다심하신 그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숙소를 돌아보고있을 때 한 일군이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남조선정객일행이 모두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세가 어렵고 복잡하며 부족한것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본래 신의에는 신의로 대답하는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인것만큼 그런 사람들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감동어린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남조선정객들의 마음속에서는 격정의 소용돌이가 굽이쳤다.

감격에 젖어있던 그들은 불편한 점이 없는가, 요구되는것이 무엇인가고 묻는 일군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심하시도록 잘 말씀드려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그들의 생활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들의 몸보신에는 소고기가 좋다고 하시며

늘 소고기를 떨구지 않도록 해주시고 겨울에 비타민C가 부족할수 있다시며 신선한 과일과 남새도 자주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어느날에는 온돌방에서는 양복이 불편하니 조선옷을 입게 하고 외출할 때에는 양복을 입게 하라고 하시며 매 사람에게 고급양복과 솜을 두툼하게 둔 바지저고리를 보내주시였다.

어느날 김규식선생이 앓아눕게 되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은 비록 고령이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할분이라고, 그러므로 그가 건강한 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성업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치료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포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치료를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국전선》신문들에 부고를 내도록 하시고 그의 장례를 잘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내각부수상에게 김규식선생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분인데 아깝게도 사망하였다고, 김규식선생은 리승만도당의 파쑈폭압밑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량심적인 민주인사라고,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를 찾아왔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울에서 만포까

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그의 한생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있었기에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남조선정객들은 전화의 나날에도 아무 불편도 없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수 있었고 전후에는 평양에 올라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활동을 벌릴수 있었다.

전화의 나날에 마련해주신 환갑연

주체40(1951)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화선전상인 허정숙을 부르시였다. 그는 전시선전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부르시는것으로 짐작하며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했다.

그를 반가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즈음 건강은 어떤가, 사업은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나서 전선형편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아버지인 허헌선생의 생일이 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한순간 어리둥절해있다가 음력으로 6월 11일인데 그날이 양력으로는 7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난다고 하시며 조용히 머리를 끄

덕이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해에 환갑상을 꼭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전시형편이 복잡한통에 지나가고말았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허정숙은 위대한 수령님께 전쟁시기여서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니라고, 지난해에는 정세가 하도 복잡하여 할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남조선에 있다면 몰라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전쟁시기라고 해서 환갑상을 차려드리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연을 깨달은 그는 가슴이 뭉클해올랐다.

전쟁이 한창인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쓰실 일인들 얼마나 많으며 보살펴주셔야 할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이랴.

전쟁이 한창인데도 꼭 환갑상을 차려드리자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정이 진정 고마워 허정숙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력으로 7월 14일이면 아직 한달 남짓한데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전쟁환경에서 잘못하면 환갑을 못 차릴수 있다고, 선생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기성관례를 깨뜨리더라도 음력생일날자를 양력에 맞추어

양력 6월 11일을 생일로 정하고 아직까지 쇠지 못한 환갑까지 차리자고 하시며 선생의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준비를 잘 해야 하겠다고, 그때 전선형편이 긴장하지 않으면 자신께서도 참가하겠다고 하시였다.

허정숙은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아버지도 기뻐할것이라고, 어떻든 주저하지 말고 잘 차려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자고, 올수 있는 동무들은 다 오게 하라고 하시였다.

그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허헌선생의 환갑상을 잘 차려줄데 대하여 이르시고나서 전쟁시기인것만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신께서 이야기하였다는것을 알려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리고 내각사무국의 일군들이 직접 그의 생일을 잘 준비하도록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시환경에서 구하기 힘든 귀중한 식료품들과 물자들도 몸소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1951년 6월 11일 평양시교외의 어느 한 민주선전실에서는 국가의 많은 책임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허헌선생의 환갑연이 진행되였다.

전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차려진 상을 마주한 허헌선생은 물론 그 사연을 잘 알고있는 참가자들도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가 멎는 소리가 나더니 한 일군이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허헌선생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편지와 함께 선물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선물을 받아드는 허헌선생의 손은 떨렸다.

늘쌍 눈물은 약한자의 표현이라고, 대장부는 눈물을 모른다고 말해오던 허헌선생이였지만 이날만은 어깨를 크게 들먹이며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장군님, 이 전란속에서도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안겨주시니 이 몸이 진토된들 하늘같은 은혜를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허헌선생은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참으로 황송할뿐입니다.》

연회에 참가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환갑연은 뜻깊게 진행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여 선생님의 생일연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허헌선생의 60돐 생일연을 다시 차려주시였다.

허헌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승용차를 타고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자 그이께서는 반갑게 그를 맞아주시였다.

《허헌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몸을 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환갑연을 다시 차렸습니다. 제가 섭섭해서 그럽니다. …》

《장군님!…》

선생은 입술이 떨려 그뒤를 잇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차 마련해주시고 친히 참석하신 그 자리에는 전날 환갑연에 참가하지 못했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그는 갈리는 음성을 겨우 가다듬으며 그이께 비로소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어제 저를 위해서 그처럼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여주시고도… 또 이렇게… 참으로 이 은혜야말로… 죽어서 백골이 되여도 잊을수 없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나서 축배잔을 드시며 자리에 앉은 일군들을 향해 허헌선생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잔에 술을 부어 허헌선생에게 권하시면서 《선생님, 조국통일을 위하여, 통일의 그날까지 오래 앉아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눈물적시며 그는 목메인 목소리로 위대한 수령님께 맹세다졌다.

《장군님! 바다보다 넓은 장군님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저의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날 허헌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요청에 의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였다.

여느때없이 사양도 않고 선뜻 일어난 선생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인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전화의 나날에 두번이나 마련해주신 성대한 환갑연은 허헌선생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였다.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허헌선생은 전시속에서도 수령님의 후대교육사상과 정책을 받들어 자기의 온 심혈을 다 바치였다.

그날로부터 두달 남짓하게 지난 8월 중순 어느날 새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허헌선생이 희생되였

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였다.

며칠후 진행하게 될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학년도 개교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대학이 자리잡고있는 곳으로 떠난 허헌선생은 장마로 강이 불어나고 다리까지 파괴된 상태였지만 정해진 개교식의 시간을 어길수가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강을 건느기로 하였다.

그러나 강을 건느던중 적기들의 폭격에 배가 파괴되는 바람에 희생되여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몹시 비통해하시면서 바다가 아무리 넓다한들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던 허헌동지를 못 찾는다는거야 말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한다, 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은 군인들을 이 작업에 동원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하여 16일만에 정주앞바다에서 끝내 허헌선생의 시신을 찾아내였고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선생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되였다.

령구가 발인되는 날 모란봉지하극장으로 친히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맨앞에서 몸소 령구를 메시고 모란봉지하극장의 높은 계단을 오르시였으며 령구가 산으로 떠나는것을 배웅하시고나서야 최고사령부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허헌선생을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된 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공적에 대하여 추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허헌선생이였기에 그는 세상을 떠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후대들의 기억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3

통일된 조국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시려 온갖 로고를 바쳐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새로운 국면개척을 위해 불멸의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면서 남녘동포들과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한 공화국영웅에게 돌려주신 은정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직후인 주체42(1953)년 8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시고 특출한 공훈을 세운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대회에 불러주시였다.

바로 이 대회가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영웅대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이 대회에 참석하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들이 세운 공훈과 업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이 맡은 과업을 영웅적으로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그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영웅대회에 참가하였던 몇몇 영웅들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들이 도착하자 기다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원쪽으로 마주 걸어오시였다.

《아, 영웅동무들이 왔구만!》

그이께서는 무척 반가와하시며 그들이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넓으신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승리하고 고향에 돌아와 어버이품에 안긴듯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은 영웅전사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는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한동안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정원의 의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여 어서 앉으라고 권하시였다.

그리고는 영웅전사들과 같이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가까이에 앉은 차례로 고향은 어디며 집에 누가 있는가, 생활형편은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그들가운데는 의거병사출신의 공화국영웅인 전경환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전경환의 차례가 되자 그의 이름을 물으시였다.

그가 자기 이름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반가와하시면서 《동무가 전경환동무구만! 동무가 <국군>에 끌려갔다가 의거입북한 동무지, 잘 알고있소. 인민군대에 편입하여 위훈을 세웠다는것을 잘 알고있소. 감사를 드리오.》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꼭 잡아 자신의 곁에 이끌어 앉히시였다.

언제나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꿈 아닌 생시에, 그것도 이처럼 영웅이 되여 만나뵈옵게 된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 영광인데 평범한 한 전사의 위훈을 그리도 대견해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니 전경환은 크나큰 감격에 목이 메여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장한 일을 한 아들의 소행을 기특하게 여기는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이는 몇살인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스물셋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린 동무가 참 용감하게 싸웠다고, 장하다고 거듭 칭찬해주시였다.

전경환의 앞가슴에 있는 훈장과 영웅메달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던 그이께서는 장가를 들었는가고 정겹게 물으시였다.

그가 부끄러운 안색을 지으며 아직 결혼전이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애인은 있겠지라고 하시고는 옆에 서있는 일군들에게 이 훈장들을 보시오, 이젠 장가도 들어야 하지 않겠소라고 하시면서 전경환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상기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고향에 부모들은 있는가,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가고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여나 아홉살때부터 려관집 심부름군으로, 꼴머슴으로 고역에 찬 생활을 하였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사나운 파도에 시달리며 날바다를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였다. 그러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 배에서도 쫓겨나 일자리를 찾아 부산과 대구, 대전 등지를 헤매며 다니다가 그만 《국군》에 끌려갔었다.

그후 그는 1950년 6월 24일 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던 리승만도당이 38°선이북지역에 척후병으로 나갈것을 강요하는것을 기회로 대담하게 인민군대

편으로 의거하였다. 그후 그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공화국영웅이 되였으며 오늘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된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는 공부도 못했고 고생도 많이 했구만라고 하시며 그의 험해보일 정도로 툭툭 불거진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순간 전경환은 고개를 숙인채 끓어오르는 격정을 참지 못해하며 어깨를 들먹이고야말았다.

언젠가 소년시절에 아버지가 네 손이 벌써 어른의 손이 되였구나 하며 한숨짓던 손, 뼈도 채 굳지 않은 어린 자식을 먼바다로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어머니의 애절한 눈물에 젖군하던 손이였다.

원한에 피맺히고 엉킨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려는듯 그이께서는 오래오래 그의 손을 만져보시였다.

자기의 손마디를 만져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스한 손길에서 전경환은 친부모의 뜨거운 정을 느끼였다.

그의 손을 잡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옆에 있는 한 일군에게 남반부에서 들어온 동무들을 잘 돌봐주라고, 휴가를 보내여 장가도 가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다시 전경환에게로 시선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있는가

고 물으시였다.

머리를 숙인채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그를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공부를 제때에 하여야 전투도 잘할수 있고 맡은 일을 잘할수 있다고,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후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특히 남반부에서 온 동무들은 그리운 부모형제들과 하루빨리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여 자신을 더 잘 준비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영웅전사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에는 그들을 위하여 몸소 연회까지 차려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참된 애국의 길을 찾아 의거입북한 평범한 병사들을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용맹의 나래를 펼쳐준 삶의 요람이였다.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해빛도 유난히 빛나던 주체44(1955)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대학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다가 남조선에서 들어온 정객들중의 한사람인 김옥주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대학기숙사에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오랜 지기를 만나신듯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반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어찌나 따뜻이 대해주시는지 그는 전라남도의 어느 한 시골에서 교편을 잡고있다가 《국회》의원으로 되였던 일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많은 남조선정객들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오게 된 사연까지 다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생활을 하다나니 무슨 공부를 하였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때까지 민주교육을 받지 못했을터이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우리는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는가 하는 조국통일방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여보라고 하시였다.

김옥주는 평범한 재북인사에 불과한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시는 그이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뜨겁게 흘러드는것을 느끼며 평소에 생각하고있던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안이 가장 정당한 방안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정말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10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에서 호소문을 통하여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다음해 8월 14일 조국해방 10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도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이를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북남조선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여 삼천리강토를 북남협상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였다.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한시바삐 가셔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김옥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씀올렸다.

그의 말을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서인지 한동안 그의 얼굴을 주의깊게 바라보시다가 다정한 음성으로 동무의 건강이 좋지 못한것 같은데 치료도 받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는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에게 있는 병이란 어렸을 때 생긴 대장출혈증과 륵막염이였는데 그리 심한것은 아니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에서 건강상태를 헤아려보시고 이렇듯 걱정해주시는것이 아닌가.

이처럼 다심한 사랑을 그는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온 민족이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께서 자애깊은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니 그는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고말았다.

어깨를 들먹이는 그를 자애깊으신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애로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동무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족이 있으면 공부하는데는 좀 지장을 줄수 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가족을 데려오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대학의 책임일군에게

이 동무를 병치료도 받게 하고 공부도 잘 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날 그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를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며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희귀한 보약까지 써가며 치료를 받게 되였다.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앓고있던 대장출혈증은 달포가 지나서부터 눈에 뜨이게 나아지게 되고 그의 건강은 날을 따라 회복되여갔다.

그러던 어느날 해빛밝은 방안의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그에게 《아버지!》 하며 네살잡이 딸이 달려와 매여달렸다. 뒤따라 안해도 입원실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지방에서 병문안을 온것으로 생각하고있던 그는 안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가족을 평양에 올라와 살도록 해주시고 중심거리에 여러칸짜리 살림집까지 마련해주시였다는 참으로 꿈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북받치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딸애를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였다.

그후 그는 병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대학에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으로 마련된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회원으로, 후에는 어느 한 기업소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기였기에 그뿐만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기둥으로, 어엿한 통일의 역군들로 자라나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었다.

몸소 학부형이 되시여

하늘이 푸르청청 맑게 개이였던 주체43(1954)년 12월 어느 날이였다. 이날 정오가 좀 지날무렵에 개성시의 만월동에 있는 송도정치경제대학에서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학에 찾아오신것이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학장의 손을 잡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면서 오래간만이라고, 건강이 어떤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자기를 알아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학장은 감격을 금치 못하며 건강하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로 말하면 1948년 4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기자들과 담화를 하실 때와 련석회의 대표들의 쑥섬협의회때 참석한바 있는 사람이였다. 그때로부터 여섯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이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선생이 맡은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학장실에 들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직원들을 둘러보시며 이 대학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가르쳐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교사도 4층으로 훌륭하게 새로 지어주고 교복, 내의, 학용품 등도 무상으로 공급하며 장학금도 넉넉히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는 학장과 함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 향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대학은 새 교사를 짓지 못하여 학생들은 옛 건물에서 공부하고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만나시여 공부하는

데 애로는 없는가, 기숙사는 춥지 않은가, 학용품은 모자라지 않는가 등을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학생들은 모두 《애로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왜 없겠는가고,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후에라도 학장선생을 통해서 제기들 하라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시였다.

학생들은 그이를 한자리에 모신 감격으로 하여 몹시 흥분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줄에 서있는 한 녀학생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름은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인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어머니가 보고싶지 않은가 등을 세심히 물으시였다.

인숙이라는 그 녀학생은 그만에야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이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채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교실에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도를 걸으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학장에게 북반부출신 학생들은 방학이면 집에 갈수도 있고 또 가지 않더라도 부모들의 편지라도 받아볼수 있지만 남반부출신 학생들은 그럴수 없기때문에 그들을 더 잘 보살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오랜 시간 학생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이

곳을 떠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을 다녀가신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해주시기 위해 여러모로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한장의 벽돌, 한 토막의 강재도 매우 귀한 때였지만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주시여 대학교사와 기숙사를 짓도록 해주시였으며 학생들에게 옷을 공급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수송수단이 곤난한 때였지만 신선한 수산물들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은정어린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고향을 떠난 학생들이 쓸쓸해하고 외로워할세라 여름방학이면 경치좋은 산과 바다가에서 야영을 조직하게 하시고 명절때가 되면 떡쌀과 과일까지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이 대학 학생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1957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한낮의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란봉유보도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대학 학생들이 이곳에서 일한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의 작업장을 친히 찾으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사장에 오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앞을 다투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훌륭한 건

설로동자들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앓는 동무들은 없는가, 일이 힘들지 않는가고 따뜻이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남조선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시고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학생들에게 곧 동무들의 학교에도 가보겠다고 하시였다.

학생들은 너무도 기뻐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얼싸안고 환성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학생들이 일을 끝내면 모두 휴양소에 보내서 휴식시킨 다음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라고, 이 학생들을 금싸래기와 같이 아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학생들은 평양시건설에 참가한 각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공사를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으로 동해의 명승 원산 송도원휴양소에 가서 즐거운 휴양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그해 8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과 평양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송도정치경제대학의 제1회 졸업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학생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현관으로 들어서시였다.

학생들앞을 지나시던 그이께서는 평양시건설동원때에 책임졌던 학생을 알아보시고 모란봉공사장에서 만났던 동무로구만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졸업식이 진행되였다.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친히 박수를 치시면서 졸업생들을 축하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졸업식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소리가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연단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전체 졸업생들과 교직원들을 축하하신 다음 지난 시기 통일운동의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졸업식을 축하하는 학생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만족해하시면서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군 하시였다.

사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불렀으랴.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시여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 학생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활에서 애로들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시였다.

학생들이 애로되는것이 없다고 일제히 대답하자 그이께서는 왜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서슴지 말고 제기하라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의 학부형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학생들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커다란 감격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녀학생들속에서는 감격의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다.

학부형!

아마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볼수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처럼 가슴을 울리는 말은 없을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학부형이라고 하시니 학생들의 가슴은 절세의 위인을 친어버이로 모신 한없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였다.

이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고싶은 간절한 청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좋소,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라고 하시며 학생들의 팔을 끼시고 현관앞으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8월의 폭양아래서 학생들의 청을 다 들어주시며 오래도록 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우시여 귀중한 시간을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진행된 이날의 졸업식은 그 어느 학교의 졸업식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가장 의의깊고 환희에 찬 졸업식이였다.

그날 대학을 떠나가시는 그이의 두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과 그들을 달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는 어버이와 자식의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이 비껴있었다.

오실 때에는 기쁨을 안고 오시고 가실 때에는 혈육의 정을 두고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터치는 눈물에 젖은 학생들의 환호성은 저 멀리 하늘가로 오래도록 울려퍼졌다.

수풍호가 전하는 사연

하늘이 유난히도 맑게 개인 주체47(1958)년 7월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수풍호에서 쪽배에 고기잡이도구들을 싣고 노를 젓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병으로 사회보장을 받고 치료를 받고있는 의용군 출신의 김정규였다.

이날 그는 고기잡이를 하다가 점심참에 집으로 돌아오던중 멀리서 자그마한 기계배 한척이 다가오는것을 보았다.

일상적으로 떠다니는 보통기계배로만 생각한 그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스적스적 노를 저어갔다.

그런데 기계배쪽에서 누구인가 고기가 잘 물리는가고 말을 건늬는것이였다. 무심결에 잘 물리지 않는다고 대답한 그는 문득 호기심에 목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너무도 놀라 젓던 노를 놓아버리고 배우에 못박힌듯 굳어졌다.

글쎄 갑판우에서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를 바라보고계시는것이 아닌가.

남녘의 하늘밑에서 모진 수난을 다 겪으면서도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북녘하늘을 향해 심신

을 가다듬었고 의용군으로 입대하여서는 먼곳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 뵈웠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달빛밝은 전호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였다.

그런데 그의 평생소원이 이렇듯 물결출렁이는 호수가에서 이루어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는 얼른 노를 저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배전으로 자기의 쪽배를 몰아갔다. 하지만 그는 주춤거리며 그 배에 오르기를 주저하였다.

자기의 주제가 말이 아니라는것을 그때에야 깨달았던것이다.

옷에서는 고기비린내가 풍기고 손에는 어지러운 고기비늘이 그대로 묻어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한손을 내미시는것이였다.

그는 어지러운 손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망설이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잡는 손이 그렇지라고 하시며 어서 손을 잡으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배에 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편안히 앉아서 좀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는 담배와 성냥을 그의 앞에 내놓으시며 어서 피우라고 손수 그의 손에 담배를 쥐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압록강에서의 양어와 물고기잡이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담화과정에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뜩 그에게 지금 몸에 병이라도 있는게 아닌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는 가슴속에서 후더운것이 치밀어올라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남녘땅에서 그는 속탈을 만나 죽도 제대로 소화시킬수 없게 되였었다. 하지만 그날그날 생계조차 막막하던 처지에서 병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무상으로 병을 고치고 지금은 경치좋은 압록강반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마음껏 잡아먹으며 몸을 추세우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자기의 얼굴에 비낀 병색을 헤아려보시였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속탈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고쳤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않으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이 어디인가고 물으시였다.

경기도 파주라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기도 파주라 하고 되뇌이시며 멀리 남쪽하늘가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한동안 배우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따금 배전을 치는 물결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로 눈길을 돌리시며 언제 북에 들어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들어왔다고 대답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군대에서 공을 세운것이 많겠다고 하시였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전사영예훈장과 군공메달을 받았다고 겨우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움을 잘했다고 치하해주시고 고향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는 안해는 죽고 어린 두 자식을 두고 왔는데 소식을 모른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두 아이를 하고 되물으시고는 천천히 일어서시였다.

한동안 무거운 걸음으로 갑판을 거니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활에서 곤난한 점이 많겠는데 죄다 이야기하라고 하시였다.

그는 곤난한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라의 시책으로 사회보장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있는데 무슨 애로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서둘러 일어서려고 하였다.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만 끼쳐드리는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그리 빨리 가겠는가, 점심식사도 다되였는데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점심상에 자신과 마주앉도록 해주시고 몸소 수저까지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서 들라고 거듭 권해서야 그는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으며 음식그릇에 수저를 가져갔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만 권하시고 자신께서는 별로 드시지 않으시였다. 어머니를 잃은 두 아이를 남에 두고 온 한 사회보장자의 일이 가슴에 맺히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저를 드신채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병치료에 약은 무엇을 쓰는가, 무슨 약이 효과가 있는가고 일일이 물으시였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대답대신 흐느껴울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내 마음이 좋겠는가, 동무가 마음껏 들고 가야 내 마음도 기쁠게 아닌가고 하시며 그를 달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바쁘신 시간을 지체시키며 걱정만을 끼쳐드리는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눈물과 함께 음식을

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잘 가라고, 몸조심하라고, 이렇게 객지에 나오다보니 가지고있는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낚시도구들을 그에게 주시였다.

선뜻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은 자신께서 주는 선물이니 어서 받으라고 하시였다.

그는 떨리는 두손으로 고귀한 은정이 담긴 낚시도구들을 정중히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들먹이는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동무는 속탈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 건강한 몸으로 자식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가 탄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갑판우에서 오래도록 바라보고계셨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병원에 입원시켜 병을 고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은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담수양어사업소에서 일하게 되였다.

196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년전에 압록강의 배우에서 한번 만났던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알아보시려고 한 일군을 어로작업현장에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때 그는 자기 심정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수 없었다.

남녘의 고향땅에 자식을 두고 온 한 사회보장자의 일이 그토록 가슴아프시여 어제날에는 그렇듯 위로해주시더니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시여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것이 아닌가.

그는 오래도록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을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뜨거운 은정은 재북인사들에게도

지난 전쟁시기 북으로 들어온 재북인사들은 주체45(1956)년 7월 평양에서 자원적인 정치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북인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1958년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재북인사들가운데서 앓는 사람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나이많은분들은 삼복철이여서 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은 과거 남조선이나 해외에서 제나름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들로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이후 련공합작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한몸바치겠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이든분들이 지난날 감옥살이에서 얻은 병때문에 고생할것이라고, 안재홍선생은 위가 나쁘고 오하영선생은 신경통으로 고생하며 조소앙선생은 관절염이 있다고 하시면서 온포휴양소가 늙은이들의 병치료와 건강회복에 아주 좋을것이므로 그들을 거기에 보내여 한달가량 휴양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해마다 삼복철이면 그들이 온포나 석암, 우산장 등 풍치좋은 휴양소들에서 한달동안 휴양을 즐기도록 해주시였다.

한없이 고결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인 안재홍선생이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매우 애석해하시며 신문들에 부고를 내고 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크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연단에서 그를 애국지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재북인사들에게 각별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주석단에도 앉혀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명절때마다 갖가지 귀중한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새로운 천연색TV와 랭동기가 마련되거나 현대적인 가구, 비품이 마련되여도 먼저 그들에게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백두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과 전국각지 공장, 기업소,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북인사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자주 알아보시고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나이많은 그들이 직장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한주일에 한번정도 운동삼아 출근하며 집에서 쉴 때에는 강이나 호수가에 가서 뽀트도 타면서 즐기도록 깊이 관심하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풍치좋은 곳에 새로운 형식의 살림집이 건설되여도 재북인사들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1993년 가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새 아빠트가 건설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아빠트에 재북인사들을 모두 옮기게 하라고 하시며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곳이니 나이든분들의 건강에 좋을것이라고, 그들이 대동강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시질도 하면서 여생을 편히 지내게 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재북인사들은 한꺼번에 새 아빠트로 이사했다.

편리하게 꾸려진 여러개의 방들이 있는 매 집은 창문만 열면 넘실대는 대동강이 발밑에서 출렁이고 유람선을 따라 쌍쌍이 날아예는 물오리떼는 장관을 이루며 한눈에 안겨왔다.

재북인사들은 새 집에서 살면서 록음방초 우거지는 좋은 계절이 오면 대동강에 나가 낚시질도 하고 뽀트도 타고 모래불에 퍼더앉아 장기도 두면서 락을 누리였다.

그럴 때면 그들은 인생말년까지 다심한 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에 목이 메이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북인사들이 살아있을 때 한생을 값있게 살며 만복을 누리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사망한 후에는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도 안겨주시여 그 이름이 후세에 길이 빛나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남조선에서 극우익반동정당인 《한민당》 조직부장도 하고 《미군장기주둔 요청안》도 기안하였던 조헌영선생을 다른 인사들과 꼭같이 내세워주시고 우대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남다른 특전까지 베풀어주시였다.

그가 희망하는대로 의학과학연구사업을 하도록 훌륭한 조건을 보장해주시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최고책임자인 최고위원 겸 서기국장의 중책까지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재북인사들가운데서 평양에 묘지

가 없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유골들을 찾아다 평양시 교외의 풍치좋은 곳에 안장하도록 해주시였다.

어느날 한 녀인이 아들을 데리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찾아왔다. 그는 남조선에서 《국회》의원도 하였고 도지사도 하다가 북행길에 올랐던 장헌식이라는 사람의 딸이였다. 그는 지난 전쟁시기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들어와 공부도 하였고 가정도 이루었으나 불미스러운 아버지때문에 항상 떳떳하지 못했다. 그러던중에 평양에 아버지의 묘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것이다.

녀인은 곧 아버지의 묘소로 안내되였다. 녀인은 아버지의 묘지앞에 이르자 북받치는 오열을 참지 못하였다.

《아버지, 이 딸자식은 아버지의 림종도 못 지켜드리고 시신도 거두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죄많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니 이 은덕을 무슨 말로 다 하겠습니까. 아버지!》

녀인의 말에 주위사람들의 가슴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나라와 민족앞에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찾아주시여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영광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메여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재북인사들의 생을 아름답게 빛내여주신 겨레사랑의 자애로운 은인이시였다.

명태떼를 두시고서도

어느해 겨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올해에 농사가 잘되여 쌀풍년이 든데다가 어장에 고기떼가 와글와글하여 물고기풍년까지 들었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동해안의 물고기떼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신것이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말씀을 끊으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런데 참 걱정이요라고 심려어린 음성으로 조용히 뇌이시는것이였다.

그 일군은 아마 수산부문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거나 물고기잡이와 관련한 문제에서 난관이 제기된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그이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하지만 걱정어린 표정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한손으로 가볍게 다독이실뿐 그이께서는 그냥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고 눈길을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어장에는 물고기가 없어 요즘 어민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여 무어라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장에 욱실거리는 물고기떼를 두고도 남조선어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그토록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였던것이다.

내각결정으로 취해주신 동포애적조치

1959년 9월 례년에 없던 태풍이 남해안일대를 휩쓸었다.

사나운 비바람에 곡식들은 물에 잠기고 강물은 바다가 되여 도시와 마을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여만에 달하는 리재민들이 집과 생활도구와 농토를 잃고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눈비가 조금만 내려도 판자집에서 고생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걱정하시고 강물이 조금만 불어도 남조선인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에 피해가 있을가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리재민들을 한시바삐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우선 1차적으로 쌀 3만석, 직물 100만마, 신발 10만컬레, 세멘트 10만포대, 목재 150만재… 이렇게 구호물자의 수량을 한자한자 적어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쓰라린 마음을 억제

하시는듯 잠시 펜을 멈추시였다.

단 하루도 편히 살수 없었던 그들에게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으니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수 있을가, 그러자면 또 무엇을 더해줄것인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결정서에다 구원의 손길을 찾아 리재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로 넘어온다면 언제든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줄것이라는것을 더 적어넣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주체48(1959)년 9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적사랑이 깃든 내각결정 제60호가 채택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는 남녘동포들을 위하여 내각결정으로 취해주신 동포애적조치는 비단 자연재해로 인한 리재민들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청소년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고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상고충을 풀어주기 위한 동포애적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공화국정부는 1955년 4월 내각결정 제40호를 채택하여 배움의 길을 잃은 남조선청년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희망한다면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전문학교, 대학, 연구원 등에서 일체 국가비용에 의한 교육을 보장해주며 그들이 학업에 안착될 때까지 기본장학금외에 옷, 신발, 학용품 등 모든것을 무상으로 추가공급하며 동시에 매달 1 000~1 500원(구화페)의 장학금을 따로 더 주기로 결정하

였다. 1956년 1월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70호에서는 남반부청소년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공부할것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따뜻이 받아줄것을 다시금 천명하고 그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옷, 신발, 학용품은 물론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넘어온 즉시로 생활준비금을 지불할것이라고 결정하였으며 1958년 8월 내각결정 제96호를 채택하여 남반부에서 생활상 곤난한 처지에 있는 청년학생들이 대학에 취학하거나 또는 앞으로 취학할 대학생들에게 항구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할 기금을 설정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비참한 생활처지에 빠진 남조선농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포애적조치로 1957년 5월 내각결정 제43호를 채택하여 남조선농민들에게 무상으로 10만석의 구호미와 그밖의 막대한 구제물자를 보낼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1961년 3월에도 내각결정 제42호를 채택하여 남반부인민들에게 수십만석의 구호미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동포애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실업자들과 류랑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958년 3월 내각결정 제96호를 채택하여 쌀 15만석, 직물 500만m, 수산물 1만t, 신발 400만컬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류랑고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양육할 용의와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망적인 생활고에서 고통받는 남조선어민들의 어로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

치로 1955년 5월과 1958년 12월에 남조선어민들이 조선서해와 조선동해의 북반부연해에서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허락하도록 하시였으며 1960년 11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남조선어민들이 걸머진 빚을 모두 공화국정부가 갚아주고 남조선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 500t짜리 가공모선과 450t짜리 철조선을 비롯한 70여척의 기계배와 남조선의 모든 돛배들에 놓을 열구기관과 디젤기관도 보내주며 어항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자재까지 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모든것은 남녘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하나 덜어주시려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이 어린 동포애적조치들이였다.

남녘어민들의 감동

주체53(1964)년 7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푸로시호》로 불리운 강한 태풍이 남조선의 서해안전역을 휩쓸었다. 그로 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일대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조난을 당하여 많은 어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상이 빚어졌다.

대체로 낡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은 불의에 들이닥친 강한 태풍의 힘을 도저히 감당해낼수가 없

었던것이다.

하여 많은 어민들이 배와 함께 바다깊이 수장되였으며 박살난 배의 나무쪼각을 그러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민들은 풍랑에 실려 공화국북반부령해에로 밀려들어오게 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에 조선인민군 해병들로 하여금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을 꼭 구원하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사흘동안이나 표류하던 30여척의 남조선어선과 220여명의 어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다.

북반부수역에 들어왔던 남조선어민들이 모두 구원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허약자들과 부상자들을 지체없이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잘 치료해주도록 이르시였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이께서는 남조선어민들에게 옷과 신발은 물론 필요한 생활필수품들도 모두 공급해주고 북반부에 머무르는 기간 아무 불편없이 지내도록 온갖 편의를 다 돌봐주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일군을 부르시여 구원된 남조선어민들의 생활형편을 세세히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어민들이 빨리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남조선어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난생처음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보고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있다고 말씀올리면서 그렇지만 하루라도 벌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갈수 없는 남조선에서 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은근히 근심을 놓지 못하고있다고 사실대로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아마 그럴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갈 때 쌀을 주자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난당한 남조선어민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며 배들도 잘 수리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간곡히 이르시면서 참관과 견학일정도 짜주시고 떠나보낼 때 환송모임도 잘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어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구원된 어민들가운데 환갑을 맞게 되는 로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에게 환갑상을 차려주도록 하시고 환갑날 입을 옷감도 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로인에게 시집갈 나이가 다된 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딸이 시집갈 때 입을 첫날옷감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남조선어민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그것은 어민들과 그 가족들, 아니 온 남녀동포들에게 베푸시는 그이의 사랑이고 배려이며 깊고깊은 은정이였다.

4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의 길을 마련하시고 민족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던 력사의 그 나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녘겨레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는 만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가속화시켜주었다.

력사의 그 나날에 있었던 숭고한 의리와 고매한 덕망에 대한 가지가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오늘도 겨레사랑의 노래로 전해지고있다.

원산앞바다에서

1976년 8월 중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고기잡이나갔던 남조선어선 《신진 3》호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여 조선동해에서 표류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여 원산부두에 입항하게 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남북간의 첨예한 대결로 정세가 극도로 긴장했던것만큼 북에서 자기들의 입북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괜한것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어선이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구원된 남조선어민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고 보살펴주도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부두에 도착한 그들을 훌륭한 숙소에 들게 하시였으며 그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해당한 대책까지 몸소 취해주시였다.

그들가운데는 오랜 기간 앓고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배의 기관장도 만성맹장염을 앓고있었는데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나니 병이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어민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것을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오랜 기간 병에 시달려온 기관장은 비로소 공화국의 품에 안겨 현대적설비들로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의료일군들의 동포애의 정 넘치는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완치되였다.

그 기관장만이 아니라 앓고있던 다른 모든 어민들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보고 듣는 모든것이 새롭고 놀랍기만 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들은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기때문에 병이 나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산다니 생각할수록 꿈만 같은 일이였다.

그들은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두손을 부여잡고 친형제처럼 반겨주는 북녘인민들의 환대에 머리를 숙이였다.

날과 더불어 그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동포애의 정이 무엇이고 인간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북반부에 머물던 기간에 추석을 맞게 되였다.

그날 밥상에는 색다른 음식이 푸짐히 차려졌고 온종일 체육경기와 오락으로 시간가는줄 모르고 즐겁게 지냈다.

이 모든것이 집을 떠나 외지에서 추석을 맞는 어민들의 외로움을 덜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마련되였다는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그들은 솟구치는 감격의 눈물을 삼키였다.

《신진 3》호가 남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민들이 돌아갈 배길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파손된 고기배를 말끔히 고쳐주도록 하시고 배우에서 한끼만 먹으면 가닿을수 있는 배길이지만 도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쌀과 부식물을 풍족하게 주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어민들이 회도 쳐먹을수 있도록 식초며 고추장도 잊지 말고 넣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감격한 어민들은 저저마다 눈굽을 훔쳤다.

한 어민은 자기들을 바래주기 위하여 부두에 나온 일군의 손을 잡고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하신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그처럼 하늘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실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여기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두고갑니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이 아닌 어민들모두의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의 고백이였으니 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떠나게 된 그 시각 이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으랴.

북받쳐오르는 감사와 석별의 정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모두는 뜨거운 눈물로 볼을 적셨다.

드디여 닻을 올린 배는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섰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배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항구쪽으로 되돌아왔다.

배가 다시금 부두로 다가왔을 때 어민들은 갑판우에서 두손을 번쩍 쳐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한동안 떠나가다가는 또다시 원을 그리며 아무래도 가지 못하겠다는듯 부두로 되돌아와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배머리를 돌리군 하기를 그 몇번, 날은 점점 저물어갔다.

배는 원산앞바다를 여섯번이나 돌고돈 다음에야 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잊을수 없는 고결한 동포애의 은정을 가슴속에 고이 새겨넣고 그들은 이렇게 떠나갔다.

수시로 알아보신 기상통보

주체73(1984)년 봄 어느날이였다.

아침일찍 출근하여 일감을 펼쳐놓았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어제 밤 기상통보에 의하면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정말 비가 오는지 확인하여보고 나에게 전화로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농촌들에서 한창 씨붙임을 하느라 들끓던 시기인데 그해따라 이른 봄철부터 비 한방울 떨어지지 않아 몹시 가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사일때문에 몹시 걱정하시는것이라고 짐작한 일군은 곧 기상관측소에 전화를 걸었다.

관측소에서는 예보대로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그에 대해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가우신 어조로 그럼 되였다고, 시름이 놓인다고 하시였다.

점심때가 지나자 과연 대륙성저기압이 밀려오면서 오래간만에 한소나기 잘 퍼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 그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비가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 다 오겠다고 예보하였는데 맞는지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일군은 다시 기상관측소에 전화도 걸고 여러곳에 알아보았다.

결과 대체로 공화국북반부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남반부지역에는 적게 내렸는데 밤에 또 한차례의 비가 올것 같다는것이였다.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는 걱정을 하시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일군은 그 사실을 보고드리였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 일군은 급히 결론을 받을 일이 생겨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가 사업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밖에서 우뢰소리가 울리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비가 쏟아지기 전에 퇴근하셔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움직일념을 않으시고 비가 더 와야겠는데 좀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은 왜 비가 더 오기를 기다려보자고 하시는지 가늠이 잘 가지 않았다.

관개망이 그물처럼 뒤덮인 우리 나라 협동벌에는 가물철에도 산간지대의 다락밭들과 일부 뙈기밭들을 내놓고는 씨붙임이 걱정없었다. 그리고 이날 내린 비량이면 모든 밭들을 충분히 적

시고도 남을것이였다.

그런데 왜 그이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실가?

일군의 머리속에 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까부터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 내린 비량에 관심을 두신다는 점이였다.

그때 남조선에서도 가물이 들어 야단법석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신문들에는 《아이고 비는 왜 안 오노》라는 기사가 실리는가 하면 농촌아이들까지 《비야 비야 어서 오라 참새둥지에 불났다》는 동요를 불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듭 전화로 날씨를 알아보신것이 북반부지역뿐아니라 남반부지역에도 비가 내렸는가를 걱정하시여 그러신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일군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어딘가를 찾으시더니 남반부지역에도 비가 오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벌써 세번째 전화였다.

얼마후 남조선전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남녘땅에도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오.》

위대한 장군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났다.

일군은 순간 눈물이 불쑥 솟구쳤다.

얼마나 남녘땅을 잊지 못해하시였으면, 얼마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였으면 날씨 하나를 두고 그처럼 걱정하기도 하시고 그토록 기뻐하기도 하시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늘 남녘동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밖으로 쏟아져내리는 비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남녘땅에 비를 준것은 하늘이지만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여 오늘 밤에는 발편잠을 잘것 같다고 하시였다.

만시름을 놓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마음속에서는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천하제일의 애국자이시다!)라는 웨침이 절로 터쳐나왔다.

전례없는 구호조치

1984년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보기 드문 대홍수가 서울일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넓은 지역을 휩쓸었다.

가물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해로 인한 재난은 참으로 혹심하였다. 인명피해는 근 350명에 달하고 리재민수는 20만 7 500여명, 파괴된 살림집수는 3만 6 700여채, 류실매몰된 논면적은 6만 7 000여정보, 피해입은 농작물은 5만 4 000여t 등으로서 총피해액은 도합 771억 2 800여만원에 달하는것이였다.

피해지역에서는 거처할데 없어 한지에 나앉은 리재민들이

당장 먹을것, 입을것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있었으며 수재에 뒤따르는 병마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었다.

수많은 리재민들이 참혹하고 원통한 사연을 하소할데도, 동정과 구원을 요청할데도 없어 생사기로에서 헤매이고있을 때 친어버이심정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남녘동포들을 도와주는것을 신성한 민족적의무로 여기시고 남녘겨레들이 재난을 당할 때마다 늘 그들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에 관계부문 일군들과 협의하시고 남조선당국이 최종집계하여 발표한 리재민수에 비추어볼 때 5인가족으로 계산하여 세대당 쌀은 약 250㎏, 천은 17㎜씩 차례지도록 하고 세멘트는 3만동의 살림집을 지으며 의약품은 수해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게 넉넉히 마련해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3(1984)년 9월 8일 남조선리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결정 제32호가 발표되였다.

당시 남조선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구호금》이 2만US$, 10만US$인것에 비추어볼 때 공화국에서 보내주기로 한 구호물자는 이와 대비도 할수 없는 1 800만US$에 달하는

량으로서 120여년간의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에서 전례를 찾을수 없는 큰 규모의것이였다.

거기에는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오로지 재난당한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한없이 고결한 민족적의리와 사심없는 동포애적지성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호물자전달사업이 한시바삐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는 좋은것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전량이 빠른 시일안에 마련되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호물자가 하루빨리 남조선리재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시기 위하여 중앙지휘부를 조직해주시고 구호물자준비사업에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구호물자생산보장사업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어느날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호물자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는 원호물자를 비가 온다고 하여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정된 기간안에 무조건 넘겨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줄 구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 전

국의 방방곡곡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낼 구호물자도안과 견본품, 포장형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아주시며 구호물자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포장도 성의껏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비된 구호물자를 지정된 장소에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기 위해 근 2천차량의 화차와 수천대의 화물자동차를 동원할데 대한 특별지시를 하달하시고 몸소 수송사업을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겨레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구호물자들은 9월 26일까지 전량 마련되여 출발지점으로 운반될수 있었다.

마침내 북녘겨레의 뜨거운 동포애적지성이 담긴 구호물자가 천수백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과 10여척의 대형짐배에 실려 인파로 붐비고 꽃물결로 설레이는 거리와 부두에서 열렬한 배웅을 받으며 남으로 향하였다.

근 40년의 민족분단사에 처음으로 구호물자와 더불어 뜨거운 혈육의 정이 북에서 남으로 굽이쳐갈 때 삼천리강산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 민족의 끝없는 환희로 끓어번졌다.

감동과 환희의 그 광경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랑과 민족적의리가 펼쳐놓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동포애의 화폭이였다.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의 구호물자전량은 계획된 기간안에 남측에 성과적으로 전달되였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 근 40년만에 실현된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통하여 세상사람들은 남녘동포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은정과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시는 걸출한 령도풍모에 경탄을 금할수 없어하였다.

인천항에서 대형집배 《어은청년》호에 올랐던 남조선의 봉사대원은 자기는 대학에 다닐 때 김구선생이 8.15해방후 이북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에 감탄하여 장군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이처럼 위대한분이시니 오늘 이 남백성들에게 하느님도 베풀수 없는 혜택을 베풀어주셨다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남녘의 한 시인은 북의 구호미를 받아안은 남조선리재민들의 진정을 담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한줌한줌 모아보낸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못 보고 못 들었지만
쌀속에 스민 인정만은
분명 내 동포 내 민족의
피와 눈물이 스민 값진 인정

…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쌀과 쌀이 어우러져 밥이 되듯이
세멘트와 세멘트가 섞이여 집이 되듯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념원이여

일본의 《재팬 타임스》는 이 력사적사변을 두고 《어떠한 외교적말공부도 사상적선전도 이와 같은 호의와 동정의 표시와는 대비할수 없다. 아무리 완고한자들이라 해도 북조선이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구호물자를 보내준것을 통해 북조선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고 평했다.

그리고 판문점현지에서 구호물자인도인수정형을 취재한 한 일본기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량이 세계구제력사의 최고기록으로 될수 있은것은 **김정일**지도자의 품이 대해같이 넓으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그 심장이 거대하고 뜨겁기때문이였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정녕 우리 겨레와 세인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실현된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구호조치에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특대받은 신자

남녘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는 그 어느것이나 다 가슴뜨거운것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의 고향방문단 성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도 그러한 이야기들가운데 하나이다.

나라의 분렬과 함께 시작되였고 분렬의 력사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커지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 덧쌓인 그리움과 혈육의 정을 나누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74(1985)년 9월 나라가 분렬된지 40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이 각각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때 북으로 넘어오는 남측의 고향방문단 성원들가운데는 한 늙은 신자가 있었다.

실무일군들은 그도 방문단의 한 성원인것만큼 여느 성원들과 같은 방에 들도록 호실배치안을 짜놓고있었다.

물론 그 호실도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령의 몸으로 고향의 가족, 친척들을 찾아오는 그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는가고 하

시면서 남조선에서 이름있는 그 신자를 고려호텔 1등실에 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우리가 좋은 호텔을 지었다가 이런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온 그 늙은이는 평양에 도착하여 고려호텔 1등실에 들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든 최고급호실을 놀라운 눈으로 휘둘러보며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북에서 이처럼 자기를 최상급으로 환대해주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그를 안내해온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하고나서 그이께서는 려관을 하나 지어도 우리 인민들만이 아니라 남녘동포들을 위해서도 짓도록 하신다고, 당신들을 위한 호실인것만큼 제 집처럼 마음놓고 류숙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늙은이는 이처럼 극진히 환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위인이시라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각별한 은총

력사가 전하는 절세위인들의 겨레사랑의 이야기가운데는 남조선의 문익환목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문익환목사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저명한 민주인사이며 진보적민주단체들의 통일전선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 고문으로 사업한 재야정치계의 원로였다.

1980년대말에 이르러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은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러 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속에서 평양을 방문하여 공화국의 지도급인사들과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해보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었다.

문익환목사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1989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방도의 민족적합의를 위한 북과 남 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에서 남조선의 여러 정당 총재들, 각계 인사들과 함께 문익환목사도 친히 평양에 초청해주시였다.

문익환목사가 이 희소식을 들은것은 1월 1일 정오가 좀 지

나서였다.

목사는 평양에 가고싶은 소원이 성취된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랐다.

그는 민족의 중대사인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자기를 초청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이 더없이 고마웠다.

그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에 지지를 표시한데 이어 얼마후에는 마침내 온 남녘겨레의 통일열망을 안고 평양방문의 길에 올라 3월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애국애족의 장거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를 통일의 사절로 뜨겁게 맞이하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익환목사를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묘향산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여러곳들을 돌아보도록 하시였다.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떠나간 후에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그의 신변안전을 걱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렬주의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그를 철창속에 가두었을 때에는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통일사절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문익환목사의 애국적지조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폭거를 규탄하는 성명과 담화들을 련이어 발표하도록 하시였고 각급 인사들로 문익환목사구원대책위원회도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북남고위급회담의 공식발언석상에서도 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시였으며 문익환목사에게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도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익환목사가 석방되였을 때에는 많은 위문품들과 함께 건강을 빨리 회복하라고 귀한 보약재들도 보내주시였다.

통일을 위해 헌신하던 문익환목사는 옥중고초의 후환으로 사망하였다.

이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백발을 날리며 민족대단결과 통일투쟁의 앞장에 섰던 문목사의 불굴의 모습을 되새기시며 몹시 애석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문과 방송들에 그의 부고를 내여 애도의 뜻을 표시하도록 하시고 남조선당국의 방해로 조의방문단이 서울에 갈수 없게 되였을 때에는 장례식당일에 평양에서 그를 추모하는 추도식을 거행하도록 하시였다.

정녕 통일의 념원을 안고 사선을 넘어온것이 그리도 크시여 통일의 사절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은정이야말로 통일의 구성, 민족의 어버이만이 베푸실수 있는 각별한 은총인것이다.

남녘음악가들이 받아안은 은정

주체79(1990)년 10월 14일 개성을 출발한 평양행 렬차에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오는 남녘의 음악가들이 타고있었다.

서울에서 오는 음악가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렬차로 평양까지 오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동안 지루하고 갑갑해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렬차안에서 소품공연을 하되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아이들의 공연을 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평양행 렬차안에서는 유치원어린이들의 이채로운 춤과 노래무대가 펼쳐졌다.

민족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귀여운 어린이가 인사를 하였다.

《언제면 오시려나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통일음악회에 오시는 남녘의 음악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꿈에도 보고싶고 만나고싶었던 우리 꽃봉오리들은 꿈아닌 오늘 이렇게 만나고보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만난것처럼 반가운데 웬 일인지 눈물이 자꾸자꾸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제부터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친손자, 친손녀가 되여 평양까지 가시는 동안 춤과 노래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렬차안은 맑고 고운 노래가락, 춤가락들과 그에 대한 환희와 탄성으로 차고넘쳤다.

맑은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며 목메여 부르는 철부지어린이들의 노래는 남녘음악가들을 울려놓고야말았다.

한피줄을 이은 겨레가 헤여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분렬의 아픔에 울고 어서빨리 통일된 조국에서 한형제로 살고싶은 소원의 분출로 울었다.

그 소원을 안고 음악가들과 어린이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눈물속에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렬차안에서부터 메아리치던 노래는 북과 남, 해외가 모여 함께 부르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로 이어져 힘차게 울려퍼졌다.

통일음악회가 끝날무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아 폐막연회때에 통일잔치상을 차릴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연회장 한가운데 조선지도형태의 연회탁을 만들고 그우에 지방에 따라 특산물과 과일, 청량음료들을 배치한 다음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축포가 터져오르는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진행하며 《민요를 따라 삼천리》음악회도 열도록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구석구석에까지 미치였다.

그이께서는 이제 또다시 헤여져 분렬의 아픔을 겪어야 하

는 이들에게 다문 하루밤만이라도 통일의 기분을 안겨주고싶으셨던것이다.

이리하여 폐막연회장소인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는 성대한 통일잔치상이 차려졌다.

《통일잔치상》이라는 꽃글장식을 부각한 조선지도모형으로 된 대형연회탁에 출신도별로 앉은 북과 남, 해외동포음악가들은 너무도 희한한 광경을 보며 감탄하였다.

함경북도의 특산물인 회령백살구, 군감자, 감자떡, 함경남도의 사과, 털게, 낙지순대, 량강도의 백두산샘물, 량강술, 들쭉술, 들쭉단물, 평안북도의 노치, 록두지짐, 송편, 설기떡, 자강도의 강계포도술, 인풍술, 과줄, 황해남북도의 찰떡, 오곡밥, 강원도의 금강샘물, 감, 대게, 왕문어회, 경기도의 약밥, 인삼정과, 충청남북도의 깍두기, 경상남북도의 소고기매운탕, 콩나물, 전라남북도의 새끼돼지찜, 제주도의 해삼탕, 고사리, 도라지, 울릉도의 게 그밖에 개성고려인삼술과 대동강의 유명한 숭어탕 등 수많은 음식들과 과일, 주류들이 올랐다.

산해진미가 다 오른 잔치상이였다.

그야말로 음식도 통일이였고 마음도 통일이였다.

혈육의 정, 통일맞이의 기분속에 《민요를 따라 삼천리》공연이 펼쳐졌다.

너도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 도의 민요를 불렀다. 《양산

도》, 《풍구타령》, 《까투리타령》, 《경상도아리랑》, 《돈돌라리》, 《노들강변》 등 유구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민요들을 부르며 춤을 추었다.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어깨를 들썩이는 그 광경은 온 겨레가 함께 모여 춤추고 노래부르는 통일광장의 환희와 감동이 그대로 펼쳐진듯싶었다.

숭고한 의리의 세계

해방후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던 조선인민당 당수 려운형선생이 괴한들의 총탄에 희생된 때로부터 44년이 지난 1991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서울의 우이동 태봉에 있는 려운형선생의 묘소앞에는 만사람의 눈길을 모으는 화환이 놓여있었다.

이 화환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것이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며칠전인 11월 16일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사업하고있던 려운형선생의 딸 려연구는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토론회에 참가할 공화국녀성대표단 단장으로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형제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생각이 난다고, 그가 희생된지 벌써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서울에 가면 아버지묘소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자신께서 몸소 려운형선생의 묘에 화환을 보내려 한다고 하시였다.

방안에서는 감격의 흐느낌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앞에서 선생의 자녀들은 북받치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들의 눈앞에는 불현듯 12년전 설날에 있었던 일이 펼쳐졌다.

그날에도 려운형선생의 네 자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려운형선생을 만나던 때를 감회깊이 회상하시며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날에 너희들을 만났는데 기념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량옆에 나란히 세우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을 잊지 못하시듯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잊지 못하신다고, 그들이 일찌기 부모를 잃고 얼마나 외롭겠는가고, 이제라도 모두 평양에 모여살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그들 네 형제들에게 새 집들에서 살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려운형선생의 네 자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한지붕아래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딸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화환까지 보내주시는것이 아닌가.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고마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의 묘에 가져갈 화환의 크기며 거기에 사용할 꽃송이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추운 날씨에 평양에서 서울까지 나가는 동안 화환에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들을 화환제작에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극한 관심속에서 화환은 훌륭하게 만들어졌으며 화환에 사용된 꽃들과 그 개수에도 깊은 뜻이 담겨지게 되였다.

화환은 려운형선생의 나이가 105살이고 부인의 나이가 103살이라는것을 고려하여 208개의 꽃송이로 둘레를 장식하고 그가운데에는 자식들이 9남매라는것을 상징하여 9송이의

김일성화와 9송이의 **김정일**화를 장식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환을 가지고 려연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게 되였던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친척들과 몽양 려운형선생추모회 성원들과 기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쓸쓸하던 태봉의 숲속에서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이런 영광의 화폭이 펼쳐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하기에 려연구는 북받치는 오열을 삼키며 이렇게 아뢰이였다.

《아버지!

잠시나마 잠에서 깨여나서 이 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반동테로에 쓰러지실 때조차 올 길 없었던 이 딸이 오늘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꽃과 하늘땅 가득찬 영광을 한가슴 안고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경모해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은정어린 화환을 보내주시였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아버지를 통일의 선각자로, 애국지사로 불러주시고 못내 잊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잘못되였다는 비보에 접하시여 그리도 애석해하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런듯 사려깊으신 위로의 뜻을 꽃향기에 담아 이처럼 몸소 화환을 보내주시였습

니다.

정말 이런 꿈같은 일이 동서고금 어디에 어느때 있어본적 있습니까.

아버지!

어서 눈을 들어 이 꽃을 보아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시여 이 화환을 받아주세요.

변함없으신 믿음의 그 뜻이, 머나먼 저 우주의 별도 끌어당기는 그 위대한 사랑이 사시절 따로 없는 영생의 봄을 꽃피워주시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추모사는 듣는 사람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친척들도 울고 래빈들도 울고 기자들도 모두 울었다.

몽양 려운형선생추모회 회장은 《묘소에 따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준비는 하였지만 이렇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화환이, 그것도 생화가 와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떻게 50년가까이 정사를 보시게 되였는가 하는 의문이 단번에 풀립니다.》라고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정녕 그 화환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려운형선생의 삶을 길이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생을 마친 려운형

선생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예술영화 《해빛이 그리워》를 만들어 통일애국에 바친 선생의 생애가 력사에 남도록 해주시였다.

또한 1997년에는 평양에서 려운형선생서거 50돐추모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997년 7월 19일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열렸던 모란봉극장에서 《려운형선생서거 50돐 평양시추모회》가 엄숙히 진행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통일성업에 이바지한 사람모두를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5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분렬로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시대를 펼쳐주시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시던 나날에 남녘의 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민족애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통일운동사에 별처럼 새겨져있다.

겨레의 불행을 두고 마음쓰시며

주체84(1995)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일군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뜻밖의 사고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을 불행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 경위와 피해정형에 대해 여러차례 알아보시였다.

파괴된 삼풍백화점으로 말하면 날림식으로 짓다나니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건물이였다.

거기에다 사람들이 상점을 제일 많이 리용하는 퇴근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다보니 물건을 사려고 이 상점을 리용하던 가정주부들이 수백명씩이나 페허속에 묻히게 되였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료해하고나신 장군님께서는 해당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저녁시간에 물건사러 나왔던 가정부인들이 수백명이나 묻혔다니 이런 큰 변이 어디 있는가고, 숱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고 울고있을텐데 그애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되였다고, 정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전화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아무 대답도 드릴수가 없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으면 그 짧은 새벽잠마저 잊으시였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녘인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두고 끼니도 건늬시고 편히 쉬지도 못하신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미 오래전에 분렬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며 겨레가 당한 불행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고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한없이 숭고한것이였다.

중대한 행사에 앞서

우리 겨레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맞이한 주체84(1995)년 7월 8일.

이날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과 세계의 이목은 엄숙히 거행될 금수산기념궁전(당시) 개관식장으로 향하고있었다.

개관테프를 끊으시려 나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량옆에는 해외에서 찾아온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책임일군과 함께 작은 키에 하얀 소복단장을 한 할머니가 동행하고있었다.

그가 바로 남편과 함께 통일애국의 참된 길을 걸은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남녘겨레들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안고 평양으로 왔다.

그가 머나먼 지구를 에돌면서 평양방문의 길에 나선것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잃은 비통한 슬픔을 북녘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그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남편이 못다 걸은 조국통일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하기에 그는 평양에 도착하여 제일먼저 만수대언덕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남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도 담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추모하였던것이다.

열렬한 환영속에 평양의 곳곳을 방문하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어떤 크나큰 영광이 기다리고있을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7월 8일, 이날은 박용길녀사의 짧지 않은 한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의 력사적준공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토록 중대한 행사에 앞서 박용길녀사부터 만나주시였던것이다.

박용길녀사는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말씀드리였다.

《남쪽민중의 심정을 담아 **김일성**주석님을 조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절을 올리는 그를 다정히 일으켜세워주시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고령의 몸으로 어려운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이렇게 와주어 정말 고맙다고 하시였다.

박용길녀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고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이어 녀사는 위대한 장군님께 문익환목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을 때 끼였던 안경과 반지를 보여드리며 자기는 홀로 온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왔다고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정을 담아 올리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문목사도 오고 그리고 남녘의 4천만이 온줄로 알겠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겨레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장군님의 마음의 상처가 해가 바뀌였다고 어찌 가셔졌으랴만 오히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목사를 잃은것은 민족의 큰 손실이라고 하시며 남편을 잃은 박용길녀사의 애석한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용길녀사가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아 어려운 길을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면서 민족분렬주의자들의 회유와 탄압책동을 박차고 수만리를 에돌아 기어이 평양방문을 단행한 박용길녀사의 소행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모처럼 북에 온김에 통한속에 반세기를 그리던 평북 어머님묘소도 찾아뵙는것이 좋겠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염쉬염 명승지도 돌아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녀사를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자애에 넘치신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인자함에 숭엄해지는 그이의 존안에서 박용길녀사는 문목사가 생전에 이야기해주었던 **김일성**주석님의 풍모에 대하여 되새기게 되였다.

과시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은 위인이시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한 정을 쏟아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남녘동포들이 보고싶습니다.

나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은 나지막하였으나 박용길녀사는 크나큰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이의 말씀에서 허물어지는 분렬의 장벽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접견을 받으면서 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통일의 구성이실뿐아니라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시며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라는것을 깊이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이르러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인사를 올린 박용길녀사는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자리를 떠날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용길녀사가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직승기를 내시여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단군릉과 만수대창작사, 3대혁명전시관과 김정숙탁아소 그리고 평양산원을 비롯한 평양시내의 여러곳과 백두산지구를 참관하면서 그가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편에게 부어주시던 뜨거운 그 사랑을

그대로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정이 너무도 고마워 그는 마음속으로 삼가 큰절을 드리였다.

박용길녀사의 평양방문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따르는 남녘의 민심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것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애국적장거였다.

어느덧 녀사가 돌아갈 날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까운 혈육을 떠나보내는 다심한 심정으로 박용길녀사의 귀환경로에 대해서까지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박용길녀사가 통일을 위해 꼭 판문점으로 나가겠다고 한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신상이 못내 걱정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된 조문파동으로 북남사이의 관계가 매우 팽팽한 때였지만 남조선당국에 녀사를 구속탄압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공식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평양을 떠날 때에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송별연회를 잘 차려주고 평양체육관광장에서 그를 환송하는 모임을 가지며 천리마거리에서 통일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연도에서 수만명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바래우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기에 박용길녀사는 평양방문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격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이시다.》라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5년 6월 북남공동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박용길녀사가 평양을 찾아왔을 때에도 다시금 그를 만나주시고 인생로년의 자욱자욱을 통일애국으로 수놓아가는 그의 소행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며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봄길이라는 그 이름처럼 조국통일의 길에 헌신해온 박용길녀사가 병환으로 서거하였을 때에는 그의 유가족들에게 친히 조전까지 보내주시였다.

정녕 늦봄 문익환목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민족애에 떠받들려 통일운동의 선각자로, 통일애국인사로 력사에 그 이름 남길수 있었다면 봄길 박용길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통일의 할머니》로, 통일맞이봄길을 열어나가는 통일애국인사로 겨레의 찬양을 받을수 있었다.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선구자로

해빛과도 같이 따사로운 위대한 장군님의 겨레사랑의 력사속에는 남조선의 기업가였던 정주영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한평생을 오로지 자본의 축적과 기업의 확대, 치부에만 집착해온것으로 하여 이름뒤에 《재벌총수》, 《돈황제》라는 꼬리표만 따라다니였던 그가 어떻게 되여 인생말년을 애국적인 기업가,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선구자로 장식할수 있었

던가.

1998년 6월 남조선 현대그룹일행이 얼어붙은 분렬의 장벽을 넘어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였다.

정주영선생이 북행길에 오르게 된것은 해방후 애국에 뜻을 둔 수많은 남녀의 각계 인사들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길에 오른것처럼 인생말년에나마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를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과거를 묻지 않고 통일의 길에 세워주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의리로 민족앞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자본가로서 정주영선생의 사회계급적처지나 지나온 생애보다 가슴속에 간직하고있는 그의 민족적량심을 소중히 여기시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할수 있는 특전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공화국체류기간 고향인 통천에도 가보고 친척들과도 상봉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풍치수려한 묘향산, 금강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도록 배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고도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정주영선생은 참으로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체류일정이 끝나가면서 그는 공화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향방문의 길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을 단 한번이라도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속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정주영일행의 평양방문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정주영일행을 만나주지 못해 안됐다고, 너무 할 일이 많아 좀처럼 짬을 낼수 없었다고 하시며 앞으로 다시 오면 그때는 자신께서 꼭 만나주겠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체87(1998)년 10월 공화국을 다시 방문한 정주영명예회장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그의 숙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고령에 있는분이 나를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지지도도중에 평양에 오다나니 이렇게 밤이 늦어서 정주영선생을 만나게 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체류기간 불편한 점들은 없었는가, 정주영선생이 다리를 불편하게 쓰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되였는가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숙소에까지 찾아오시여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은정에 어쩔바를 몰라하며 송구스러워하던 일행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여났으며 정주영선생과 그의 아들 정몽헌 선생은 속에 품고있던 생각까지 다 말씀드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주영선생은 고향을 북에 둔 사람으로서 평양에 자주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동안 그들일행과 친혈육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정주영선생은 장군님의 손을 꼭 잡고 《장군님을 만나뵈웠으니 이젠 100살을 더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겠습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담화가 깊어갈수록 정주영일행은 장군님의 다심하신 인품에 더욱더 끌려들며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시종일관 정주영선생을 명예회장선생이라고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에 감동되여 정주영선생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을 담아 그이를 《장군》이라고 존칭하였다.

놀라운것은 83살의 고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의나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의사도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군 하던 정주영선생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는 어데서 그런 열정이 솟구쳤는지 옆사람의 도움이 없이 장군님의 음성을 모두 알아듣고 말도 더듬지 않은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경향신문》에는 《귀가 잘 안 들려 평소에 옆의 사람의 도움을 받군 했던 정명예회장은 그토록 바라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난 기쁨으로 대화의욕이 솟구쳤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대화를 진행하였다.》는 글이 실렸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금강산관광개발문제를 비롯하여 정주영명예회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만난것을 기념하여 기념사진이나 찍자고, 나이많은 정주영선생이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꼭 잡으신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출신과 경력, 주의주장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그대로 펼쳐놓은 력사적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은 정주영선생은 감격에 넘쳐 《**김정일**장군님은 제 나라, 제 동포들부터 생각하시는 덕망높은분이시기에 민족의 통일전망도 밝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하고 받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장군님께 말씀드린대로 민족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것을 다하겠다고 애국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즉시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선생을 만나주시는 사진을 1면 상단에 크게 모시고 그 내용

을 특보로 전하였다.

서울의 한 기업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가족일행을 만나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흥분된 감격과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며 자기 동료들에게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한때 반북으로 민족앞에 죄지은 사람들의 과거도 불문에 붙이시고 한품에 안아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더니 그날에는 또 한 자본가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그를 따뜻이 만나주시고 그의 소망을 모두 풀어주시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 민족사랑, 겨레사랑의 정치인가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의하여 정주영선생과 그일행은 1999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세차례(2월, 3월, 9월말—10월초)나 공화국을 방문하는 특전을 지니였고 그해 10월초 또다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정주영선생과 현대그룹은 자기들을 민족앞에 크게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포애에 고무되여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갔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정주영선생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리정표를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또다시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주영선생일행을 뜨겁게 환영해주시면서 방북의 길은 정주영명예회장선생이 선참으로 개척하였다고, 명예회장선생의 공적은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은 정주영선생은 《고맙습니다. 장군님!》라고 하면서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정주영명예회장은 2001년 3월 로환으로 86살에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해하시며 조의표시를 특별히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정주영명예회장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주시였다.

그리시고도 애석한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장군님께서는 고인을 추모하여 조의대표단까지 파견하도록 은정어린 특별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대표단이 북남직항로를 따라 비행기로 서울을 향해 날아가게 되였다.

조의대표단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을 진정하고 장군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선생에게 조전과 화환, 조의대표단을 보내주신 소식은 남조선전역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고 각계층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량과 고매한 덕망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그의 애국심이 깃든 체육관이 일떠섰을 때에는 체육관의 명칭을 《류경정주영체육관》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여 정주영선생이 민족을 위한 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

정주영선생이 단지 경제인으로서 생을 마무리했다면 누가 말했듯이 그의 이름은 말그대로 수완좋은 사업가가 돈을 세는 속도만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빨리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정주영선생을 잊지 못해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 말년의 인생자욱을 새기였기때문이다. 그 길에서 그는 여생을 민족앞에 떳떳이 빛내일수 있었다.

정주영선생을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 고결한 동포애적의리는 영원한 전설로 오늘도 겨레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눈을 틔워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지나온 경력이 어떠한 사람이건 조금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뜨겁게 손잡아주시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후인 2000년 8월 위대한 장군님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동포애적사랑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으로 백두산을 참관하던 어느날이였다.

그들의 숙소로 북의 한 일군이 찾아와 다급히 물었다.

《<중앙일보> 사장선생이 누굽니까?》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일군을 바라보는 속에 한사람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예, 제가 <중앙일보> 사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긴 일군은 그에게 대뜸 물었다.

《오늘이 선생의 생일이지요?》

《예-에?!…》

순간에 두눈이 커졌던 그가 속구구를 해보더니 얼굴색이 밝아졌다.

《아,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생일입니다.》

백두산참관에 흥분되여 자기의 생일도 감감 잊고있던 사장은 즐거워 크게 웃었다. 그리고는 잠시 정색을 하고 그 일군에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럽니까?》

그 일군은 잠시 마음을 다잡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이 선생의 생일이니 가서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장군님의 배려로 생일상을 차렸으니 어서 갑시다.》

순간 사장은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에 할 말을 잊고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그리하여 이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소백수기슭에서 《중앙일보》 사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베풀어졌다.

당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진것은 말할것도 없고 함께 온 남조선언론사대표들도 어버이장군님께서 본인도 잊고있던 생일을 헤아려 축하연까지 베풀어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날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백두산의 기상과 정기를 한몸

에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의 대성인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러던 주체89(2000)년 8월 12일.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모두를 목란관연회에 불러주시였다.

하나같이 코대가 높기로 유명한 남조선언론계의 거두들인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뵙는 첫 순간에 벌써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동포애와 인정미, 넓은 도량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연회는 동포애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랜 시간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당하여온 수난에 찬 분렬의 력사를 회고하시면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6.15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앞에 나서는 력사적과제를 풀어나가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북과 남의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지난날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대결하고 불신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시며 화해와 통일시대에 민족언론이 수행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6.15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동참해나선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그리고 과거는 물론 어제의 실언도 불문에 붙이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장선생들이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겨레의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온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통일애국에 불타는 선생들의 그 대용단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외교상 의례절차 같은것은 당초에 뒤로 제쳐놓으시고 너무도 허물없이 자기들을 대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소탈하신 풍모에 어려움이나 자제력도 잊고 그들은 축배잔을 내려놓기 바쁘게 질문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무례하다 할 정도로 이들의 질문은 극성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질문들에 단마디 명창으로, 때로는 해학적인 표현과 웃음으로 마디마디에 열백가지 깊은 의미를 담아 듣는 사람모두가 대번에 속이 후련하게 명쾌한 대답을 주군 하시였다.

문득 어느 한 방송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자

세로 위대한 장군님께 질문을 올렸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은 언제쯤 됩니까?》

간단하고 단순한듯 한 질문이였지만 온 겨레가 반세기이상이나 마음속에 깊이 안고있는 거대한 의미가 담긴 질문이였다.

연회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이 숨을 죽이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기탓이라고,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과 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단합하여 기어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품고 일떠설 때 바로 그날이 통일이 되는 날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언론사 사장들은 형언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을 수첩이 아닌 심장에 새겨넣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달전 북과 남은 공동선언에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서 통일의 문을 열데 대하여 전세계앞에서 확약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먼저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떨쳐온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조선민족이 그래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지 못하겠는가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의 강요에 의해 갈라졌던 부부가 다시 만날 때에도 단계적으로 재화합하는가고 반문하시고나서 서로 만나

포옹하고 오해를 풀면 되는거지 일부 사람들처럼 그 무슨 《상호주의》요 뭐요 하는 보따리장사군같은 괴이쩍은 론거를 들고 나와 문제를 까다롭게 해서는 백년이 가도 평화통일이 안된다고, 우선 남의 잔치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참견하는 불쾌한 자들이 없어야지 그자들의 롱락물이 되였다가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만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철리를 심장속깊이 새겨주는 심오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매혹의 세계에 빠져버린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시간감각을 잊은채 국제관계는 물론 생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까지도 스스럼없이 올렸다.

앞으로의 대외관계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으면 한다는 어느 한 방송사 사장의 청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주변에 큰 나라들을 두고있고 북과 남의 인구를 합쳐도 1억이 안되는것만큼 어디까지나 제정신을 가지고 존엄있게 살아야 한다고, 큰 나라라고 하여 그에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굽신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하시였다.

《자주성은 곧 민족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우리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군 합니다.》

연회를 마감할 때가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에 와서 너무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기때문에 앞으로 북측대표들이 남에 나오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언론사 사장들에게 그런건 조약을 체결한것도 없으니 남쪽식으로 하면 될것이라고 하시여 장내에 웃음바다를 펼쳐놓으시였다.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눈여겨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의 그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통일언론으로 새롭게 태여나 시대의 선도자이고 정의로운 투사로서의 언론인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다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자기들을 친절히 만나주시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면서 연회장을 떠나시는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다음날 8월 13일, 남조선의 주요신문과 방송들은 일제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소식과 목란관연회에서 하신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을 보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 목란관에서 평양을 방문한 언론사 사장단 성원들과 오찬 진행.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순간에 온넋이 끌리는 매혹의 지도자였다. 아시는것이 너무 많으셔 놀라왔고 판단력과 림기응변이 너무 능하셔 경탄스러웠다. 어떤 복잡한 문제에도 막힘이 없이 명쾌한 대답을 주셨고 한마디의 말씀에도 심오한 철학을 담아 풀이하셨다. 허물없이 사장단성원들과 건배도 하시고 사진도 함께 찍으시였으며 오랜 친구처럼 팔을 끼고 다정히 걸으시며 막역한 벗인듯 격의없는 롱도 하셨다.》

《이남언론의 <대부>들이 평양을 다녀와 련공통일언론인이 되였다. 반공선전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이남언론이 단 한번의 방북으로 위인칭송언론, 련북통일언론의 장을 펼치게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듣던바 처음이요, 보던바 처음이다.》

외신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목란관오찬을 통해 지난날 불신과 대립만이 지배했던 북남언론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언론의 탄생을 선포하였다.》고 격찬하였다.

후날 세계의 언론이 《미국에 의해 수십년간 길들여진 반공나팔수들을 너무도 짧은 순간에 련공나팔수들로 변신시킨 경이스러운 오찬》이라고 평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남측 언론사대표단접견은 언론인들의 머리속에 오랜 세월 타성으로 굳어진 불신과 대결의 관념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며 통

일언론의 새시대를 열어놓게 한 획기적사변이였다.

이것은 진정 남조선언론인들을 민족의 지성을 대표하는 참된 언론인들로,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선각자로 내세워주시려는 민족의 어버이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남녘의 옥동녀

주체94(2005)년 10월 평양산원에서 민족분렬이래 처음으로 남녘아기가 태여나는 반갑고도 희한한 일이 생겨나 온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1998년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 왔던 황선녀성이였다.

그는 해산예정일이 조금 지난 상태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관람길을 열어주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길에 올랐던것이다.

황선녀성은 10월 10일 저녁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던 도중 갑자기 오는 진통으로 하여 평양산원에 입원하게 되였으며 입원한지 1시간도 못되여 귀여운 옥동녀를 순산하였다.

이렇게 그는 평양산원에서 통일동이를 낳게 되였다.

평양산원에서 옥동녀를 낳은 며느리와 보육기안에 있는 손녀를 본 황선녀성의 시어머니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황선녀성은 입원해있는 기간 공화국의 무상치료제의 혜택으

로 산후치료는 물론 종합적인 치료와 함께 모든 산모들과 꼭같이 산꿀과 귀중한 보약제, 영양제들을 공급받았다.

그리하여 산모의 건강상태와 아기의 발육상태는 대단히 좋아졌다.

황선녀성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가 비행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갓난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불편할수 있으므로 판문점을 통해 륙로로 가게 하되 차를 천천히 몰아 산모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사려깊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다심할수 있으랴!

황선녀성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8.15통일대축전행사와 범청학련 북녘문화유적공동답사 및 공동학술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총련》대표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당시 황선녀성은 대학생이였다.

그는 평양방문의 나날 주체성이 살아숨쉬고 민족성이 력력히 흘러넘치는 공화국의 현실과 북녘겨레의 통일열망을 목격하면서 격앙된 심정을 터뜨려 여러편의 시들을 썼었다.

그 시들을 한데 묶어 출판한 책의 표제가 《겨울꽃》이였다.

민족성원 한사람한사람을 따뜻이 품어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시집의 첫

머리에 편집된 《금강산》이라는 시를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에는 겨레를 사랑하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녘학생대표의 애국심을 소중히 여기시는 친어버이의 살뜰한 애정이 슴배여있었으며 젊은 문학도, 전도유망한 민족시인으로서 황선학생이 앞으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 밑거름이 될 더 좋은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라는 고무와 기대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시작품을 보여드리고 높은 평가를 받는 영광을 지닌것은 남조선청년학생으로는 황선학생이 처음이였다.

축복의 꽃보라속에 평양산원의 보석주단우를 걸어나온 황선녀성이 평양산원입원의 나날에 받은 감격과 행운을 담아 노래한 시를 여기에 담아본다.

산원의 가르침

어느새 두 아이의 어머니건만
아직도 젖먹이기에 서툰 나는
젖물리기도 기저귀갈기도 다시 배운다
낳는다고 어머니가 아니구나
어머니되는 길은 멀고 험하다

갓난아이에게도
밥 먹었나요, 잠을 잘 잤나요
꼬박꼬박 존대하고 고와라 고와라를 련발하는
애기방 식구들에겐
저렇게 친절하고 박애해야 한다 배우고

《미싸일》만 한 주사를 들고 와서도
부지불식간에 놓고 가는
간호사언니들에겐
솜털같은 미소와 손끝을 배우고

환자의 손톱만 한 변화에도
불치의 장애를 극복한양 기뻐하는
선생님들에게선
자본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열정과 자부심을

차별없는 병원문
진료비 창구없는 출입문에서
한결같고 너른 품을 배운다

나는 이곳에서
유치원아이처럼 아장거린다

보는것마다 신기하다 눈을 빛내며
어머니를 배운다

평양산원에서 태여난것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렇다. 황선녀성은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평양에서 다시 태여난 남녘의 행운아였다.

그후 황선부부는 우리 겨레는 하나라는 뜻에서 아기에게 《윤겨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평양에서 아기를 낳은 소식은 남조선에서 큰 화제가 되였으며 남조선의 언론들은 평양에서 출산한 최초의 남조선녀성, 황씨가 통일동이를 낳게 되였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어느 특정한 개별적인 인물이나 계층에 한정된것이 아니라 남녘겨레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은정이다.

생의 활력을 부어주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뜨거운 인정과 동포애의 정으로 남녘동포들 한사람한사람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주체89(2000)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속에는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있는 비전향장기수 권락기선생의 안해 리옥순녀성도 있었다.

그 녀성은 일찍부터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남조선의 전국련합 대외협력위원장, 《통일을 여는 녀성모임》 회장으로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녀성운동가였다.

그는 17년간이나 옥살이를 한 비전향장기수인 남편과 그리고 감옥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했으며 그들의 송환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투쟁하였다. 그 나날에 불치의 병을 만나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집을 《통일광장》으로 만들어놓고 언제나 밝게 웃으며 비전향장기수들을 극진히 돌봐주는것을 인생의 락으로 여겨오는 녀성이였다.

이러한 그가 평양을 방문하였던것이다.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표들이 한점의 불편도 있을세라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옥순녀성의 병상태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헌신해오다가 불치의 병에 걸린 그 녀성의 몸상태에 대해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평양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리옥순녀성은 유능한 의사들로 무어진 강력한 의료진의 세심한 관심속에 3차에 걸쳐 종합검진을 받게 되였다.

북녘의 의사들이 그의 치료를 위해 바친 온갖 정성은 사랑과 인정이 결핍된 남녘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으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부모의 정만큼이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

평양방문일정이 끝나고 이제는 떠날무렵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옥순녀성에게 그의 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값비싼 고려약재와 몸보신에 좋은 여러가지 보약들, 많은 의약품들을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안은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생명의 시한부를 지니고있는 자신의 몸상태를 숙명으로만 받아들이고있었던 그는 자기에게 안겨지는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다.

리옥순녀성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령수님께서 폐암을 부정하시고 죽음을 이겨내는 활력을 주시였으니 저는 힘차게 살렵니다.》

그가 진심으로 터친 이 말은 밝은 해빛을 따라 참된 애국의 길을 걸어가리라는 마음다짐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만복을 누리는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서울로 향하는 그를 바래주었다.

떠나는 사람, 바래주는 사람들모두가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 이듬해 병환으로 끝내 사망하게 되였다.

2001년 3월초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의를 표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와 그 공동대표 권락기선생에게 각각 조의문을 보내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통일을 위해 한몸바친 리옥순녀성의 삶은 겨레의 가슴속에 빛나게 새겨지게 되였다.

칠보산송이버섯전설

백두산에서 뻗어나간 지맥을 따라 동해바다가에 이르면 《함북금강》으로 불리우는 칠보산이 있다.

일곱가지 보물을 간직하고있다고 하여 칠보산으로 불리우는 이 명산의 명물들가운데는 우리 나라 버섯가운데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송이버섯도 있다.

소나무의 상긋한 냄새와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쫄깃한감을 주는 부드러운 맛으로 하여 예로부터 소문난 칠보산송이버섯.

바로 여기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겨레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인민군군인들이 칠보산에서 첫물송이버섯을 많이 땄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측성원들이 연회상에 오른 송이버섯료리를 보고 부러워하기에 가을에 가서 칠보산에서 나는 첫물송이버섯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의 나날에 남측성원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상봉에 참가하였던 남측수행원들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행 등을 포함한 모두에게 1인당 10kg의 칠보산송이버섯을 선물로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한순간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장군님의 말씀대로 200여명의 남측성원들 모두에게 각각 10kg씩 주자고 해도 2t이상의 송이버섯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량도 엄청났거니와 국제시장가격으로 볼 때 그 값도 약차한것이였다.

놀라움에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고 서있는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그토록 귀한 송이버섯을 남측성원들에게 선물하려 하시는지 그 심중을 다는 깨닫지 못했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이버섯의 선도보장문제도 있고 하여 사전에 그 수송문제와 인계인수방법을 토의하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겠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송이버섯포장문제, 수송경로 및 방법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2차 북남상급회담에 참가한 남측 수석대표일행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지금 남쪽에 보낼 칠보산송이버섯을 준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북쪽의 농토산물중에서 송이버섯이 북쪽의 향토애를 느끼게 하는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쪽의 송이버섯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좋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송이버섯가운데서 가장 좋은것이 칠보산송이버섯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름났다는것, 송이버섯이 비록 소비하면 없어지는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북쪽의 마음과 향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사람당 10㎏씩 추석전날에 보내주겠으니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친지들과 세간난 자식들에게도 나누어주어 명절날 쓰게 하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르며 남측일행은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따뜻한 동포애의 정에 감탄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성원들과 하신 이 약속에는 단순히 그들에게 칠보산송이버섯을 맛보이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송이버섯을 통하여 남녘겨레의 마음속에 민족의 향취를 심어주어 그들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운동에서 조선민족된 도리를 다하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그로부터 열흘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칠보산송이버섯을 전달할 위임을 받고 남조선에 나가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남녘동포들에게 민족의 향취를 한껏 안겨주고 돌아오라고 당부

하시였다.

이리하여 주체89(2000)년 9월 11일.

북녘의 송이버섯이 남녘땅으로 향하게 되였고 남녘의 평양상봉수행성원들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행, 그밖에 평양에 와보지 못한 각계 인사들에게 송이버섯지함이 전달되였다.

추석을 맞으며 민족의 향취 그윽한 송이버섯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그 송이버섯마다에 슴배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정미와 겨레사랑의 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기에 지난 시기 북에 대해 적대시하며 한생을 살아온 어느 한 야당의 총재도 위대한 장군님의 정과 덕을 무심히 받아들일수만 없어 그이께 감사의 표시로 답례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그후 남조선의 각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는 칠보산송이버섯전설이 생겨나 널리 전해졌다.

남조선언론들은 《맛있다. 칠보산송이버섯》 등의 제목으로 송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신문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여서 정말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방위원장님의 선물은 우리 남녘의 모든 동포들에게 보내시는 커다란 은정이다, 여기에는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고 행

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뜻과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이 실리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사 사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송이버섯을 받아안은 자기를 축하해주는 친구들에게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덕망에 머리가 숙어지고 감사의 마음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수 없다고 하였다.

남녘동포들은 칠보산송이버섯이야말로 특유의 향과 맛, 섬세한 섬유질을 가진 최고식품으로서 내외에 《가을의 미각》이라고 소개될만큼 명품중의 명품이라는것,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으로 불리우는 명산이라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에는 5대명산을 꼽았지만 로동당시대에는 6대명산을 꼽고 칠보산을 단연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는것 등 저저마다 칠보산송이버섯과 칠보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한밤중의 특별렬차

주체90(2001)년 4월 어느날.

칠칠야밤의 어둡속을 헤가르며 함흥지구를 향하여 급하게 달리는 특별렬차가 있었다.

거기에는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이 타고있었다.

뛰여난 가창력을 가진 손꼽히는 인기가수중의 한사람인 그는 어려서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1959년 남조선의 광주에서 출생한 그가 독창가수로서 무대에 나서기 시작한것은 1974년부터였다.

그는 음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가수로서의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자체로 이악하게 노력하였고 일본땅에 건너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리면서 조선인가수로서의 명성을 떨치였다.

그러한 그의 가슴속에서는 꽃피는 4월의 봄 평양의 축전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보았으면 하는 충동이 봄싹처럼 움터나고있었다. 그는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명배우들이 펼쳐놓는 위인칭송의 성대한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자기의 이러한 의사를 내비치군 하였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한 녀가수의 이러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풀어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1년 4월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를 이번 제19차축전에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은정에 의해 김련자는 남조선가수로서는 처음으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김련자일행이 도착하기 전부터 그의 축전참가조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평양에 도착한 이후에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가수가 준비해가지고 온 공연종목을 알아보시고 단독공연도 하도록 해주시였으며 가수일행의 참관일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다.

김련자가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은정속에 만사람의 절찬을 받으며 축전종합공연에도 참가하고 단독공연도 진행하였다.

꿈에도 그리던 평양의 무대에 오른 그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쁨에 겨운 심정을 노래 《반갑습니다》로 대변하였다.

그는 북녘동포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싶어 무대와 관람석을 오고가며 민족적인 정서가 풍만한 노래들을 열정에 넘쳐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노래만을 부른것이 아니였다. 그는 관중들에게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김정일**열풍》이 불고있다는것,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팬클럽》(응원단)까지 결성하고 장군님을 따르고있다는것, 자기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라는것등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정작 평양의 무대에 올라선 김련자가수의 마음속에는 또 한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께 자기의 소박한 노래를 불러드리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과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북의 관계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꼭 뵙고싶은 절절한 심정을 터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라일에 바쁘신 장군님께서 자기와 같은 남조선가수의 공연까지 보아주실 시간이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남조선가수의 간절한 소원마저 헤아려 특별렬차까지 보내주실줄이야…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 김련자의 이러한 소원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공연은 노래 《반갑습니다》로 시작되였다.

첫시작부터 동포애의 정과 뜨거운 통일의 열기로 장내를 끓게 한 가수는 《도시처녀 시집와요》, 《휘파람》을 비롯한 노래들과 계몽기가요들, 그밖의 애창곡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 공연의 절정을 장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영광넘친 사랑의 무대에 나선 김련자는 부풀어오르는 커다란 흥분으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에 올라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내 민족을 위해 마음껏 노래부르고싶은 마음속 충동을 안고 산 그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이 마음속 소원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풀어주셨으니 가수의 마음속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존경심으로 꽉 차넘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그는 성의껏 준비하였던 노래를 열정에 넘쳐 부르고 또 불렀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련자가수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해주시였다.

노래를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신것만 해도 황송하기 그지없는데 이번에는 민족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니 김련자가수일행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가수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련자일행을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은정어린 만찬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련자가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여나 음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자체로 노력하여 조선사람으로서 일본땅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다고 하시며 그의 공연활동도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가수의 마음속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노래에서 특징적인것은 남조선에서 소문난 명가수들의 장점들을 다 종합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든것이라고, 그렇기때문에 노래가 독특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음악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평가와 치하에 김련자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아무때나 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라고, 다음해에 와서는 큰 극장들에서 공연을 많이 하여야 하겠다고 고무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북쪽에도 공연할 장소는 많습니다. 유명한 백두산에 가서도 공연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이 열렸으니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 북쪽의 인민들도 같은 동포이니 노래로 서로 사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수의 노래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촉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기를 바라시는 기대와 믿음이 어린

말씀이였다.

해외동포가수들이 민족의 넋을 지키면서 음악활동의 무대를 넓혀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에 가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기였다.

녀가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다음해 4월 김련자가 또다시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장군님께서는 그가 공연할 극장들과 숙식조건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헤아려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시집간 딸을 생각하는 친정어머니의 다심한 손길 그대로였다.

그는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도 참가하여 민족적정서가 넘쳐나고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노래들을 잘 불러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김련자일행을 또다시 접견해주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우리는 하나》를 비롯한 좋은 노래들을 잘 불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또다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만찬까지 차려주시며 따뜻한 말씀

을 해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가수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노래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성업에 이바지하도록 고무해주신 감격적인 소식은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며 급속히 퍼져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출판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가수와 그의 남편을 접견해주신 소식을 전하면서 가수가 받아안은 사랑에 대하여 크게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간 김련자는 남조선신문 《중앙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공화국방문기간에 《국빈대접을 받은것 같다.》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김정일**위원장님은 우리 민족을 유린하고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분이시고 친근한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한분》이라고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한번 만나뵙고나면 두번세번 뵙고싶은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그 어떤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못되게 나와도 우리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랴.

절세위인의 고매한 풍모에 매혹되여 우리 겨레모두는 그이의 하해같은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나가고있는것이다.

몸소 열어주신 《아리랑》관람길

《아리랑》노래는 우리 겨레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조선민족을 아리랑민족이라고 부를만큼 《아리랑》노래는 우리 겨레와 뗄래야 뗄수 없게 련결되여있다. 그것은 겨레가 사랑하는 《아리랑》이 단일민족의 넋이고 숨결이기때문이다.

수난많고 곡절많던 우리 민족의 력사를 뒤돌아보면 《아리랑》은 망국에 흩어지고 분렬에 통한이 어린 《아리랑》이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펼쳐준 자주통일시대는 피눈물의 노래, 비애의 노래였던 《아리랑》을 통일의 밝은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환희와 격동의 통일아리랑으로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주체94(2005)년 가을 평양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으로 들끓고있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대걸작품으로 기니스세계기록집에 올라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또다시 막을 올리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릉라도에 자리잡고있는 5월1일경기장은 《아리랑》공연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양시민들뿐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남녀로소를 막론

하고 《아리랑》공연을 보기 위해 기차와 뻐스, 자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왔다.

그토록 희한한 공연을 못 보면 평생 한이 된다며 멀리 함경북도에서 온 로인네들도 있었으며 누구에게 뒤질세라 부모들과 함께 달려온 소년들도 많았다.

그야말로 관람석은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공연당시에 벌써 신앙과 제도,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뛰여넘어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고있었다.

《아리랑》공연을 보고난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은 《인류의 특대형문화재》, 《인간의 능력을 뛰여넘는 기적같은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더 적중한 표현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였다.

온 세계가 《아리랑열풍》으로 들끓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녘동포들도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기 위해 마음쓰고계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남녘동포들에게 《아리랑》공연을 보여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제16차 북

남상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남측당국대표단 성원들이 《아리랑》공연을 다 보고 갔고 남측 통일부 장관도 《아리랑》공연을 보는것을 허락하겠다고 한것만큼 조직사업을 잘하여 다 데려다 보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 일군은 커다란 흥분과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6.15통일시대가 열린 때로부터 적지 않은 남녘동포들이 평양을 다녀갔지만 짧은 기간에 공연관람을 위해 대규모인원이 들어온 일은 없었던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흥분된 마음을 다잡고있는 그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오면 우리가 대우를 잘해주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하루밤 재워서 보내면 다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녘동포들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체류기일문제, 참관장소확정문제 등 초청, 영접, 안내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따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남녘동포들의 《아리랑》공연관람과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가 가까와오면서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남측의 평양참관단 성원들을 숙식시키기로 했던 양각도국제호텔에 당창건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될 국내대표들을 들이는 문제가 제기되였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은 부득불 평양참관단보장사업을 맡아보는 남측의 여러 단체들에 평양참관단일정을 조절해줄것을 통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남측성원들은 경축행사기간에 평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고 하면서 복도를 침실로 해서 한개 층에 수십명씩 숙식하거나 5월1일경기장에 천막을 치고 자도 좋다고 하면서 평양참관을 계속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각도국제호텔에 들기로 예정되였던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 국내대표들을 모두 다른 려관에 옮기고 양각도국제호텔뿐아니라 보통강호텔도 통채로 남측참관단이 리용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언제나 남녘겨레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뜨거운 동포애에 일군들은 물론 남녘동포들도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동포애에 의하여 북과 남을 오가는 특별비행기항로가 열려져 남녘동포들이 수백명씩 련이어 《아리랑무지개다리》를 타고 평양에 날아오는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 펼쳐졌다.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려고 분렬의 장벽을 넘어 찾아온 수많은 남녘동포들로 하여 릉라도는 더욱 흥성거리였다.

정치인도 왔고 기업가도 왔으며 평범한 회사원, 로동자, 학생들도 모이였다. 근 1만명에 달하는 남녘동포들이 평양에 와서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돌아갔다. 지어 임신부들도 찾아왔다.

당시 남쪽에서는 《아리랑》이 대인기를 끌고있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도를 비롯한 도처에서 《아리랑》을 보겠다는 신청자들의 대렬이 꼬리를 물었으며 인터네트에는 《아리랑》광고들이 홍수를 이루고 사람들은 《<아리랑>을 보았습니까?》라는 말로 아침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말그대로 삼천리가 《아리랑》의 열기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남녘동포들이 평양에 와서 《아리랑》을 관람한 시간은 불과 1시간 20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1시간 20분은 민족분렬 60년을 뛰여넘어 반목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따뜻한 동포애로 녹여주는 화해와 단합의 1시간 20분이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다 모인 5월1일경기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열기로 끓어번졌다.

북녘의 인민들이 《우리는―》 하고 구호를 웨치면 남녘동포들은 《하나다!》라고 화답하고 뒤이어 또다시 《조국―》하면 《통일!》 하고 화답해나섰다.

서로 손을 흔들어주고 울며웃으며 손을 맞잡는 광경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격동적인 모습들이였다.

공연 전기간 남녘동포들은 련속 사진기샤타를 누르는가 하면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금강석》, 《민족의 저력과 미래에 대한 상징》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것은 《아리랑》공연을 보러 평양에 들어온 참관단성원전체가, 아니 온 남녘겨레가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였다.

이 웨침은 《아리랑》이 하나이듯이 갈라져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 이 땅우에 《아리랑》의 대하, 거대한 통일의 대하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였다.

북과 남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하늘을 찌를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1만 2천봉우리들, 각양각색의 모양을 닮은 기암들, 거대한 층암절벽들과 깊고깊은 계곡들, 수많은 담소와 못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맑은 물,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져내리는 무수한 폭포들, 다양한 동식물상과 록음 등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금강산.

예로부터 세상사람들이 못 보면 일생 한이 되여 다시 태여나면서라도 꼭 보고싶어한 천하제일명산이 바로 금강산이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북과 남의 분렬로 하여 금강산

관광은 남녘동포들에게 있어서 풀수 없는 한갖 소망으로만 남게 되였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여있는 최전연지대였던 금강산이 어떻게 되여 온 겨레가 모두 찾는 곳, 북과 남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될수 있었던가.

1973년 8월 어느날 강원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강산일대를 돌아보시였다.

장군님을 맞이한 금강산은 수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다듬고 가꾸어온 자기의 신묘한 자태와 절경을 한껏 자랑하는듯싶었다.

명소와 명폭포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 좋은 경치를 잘 보존하며 인민의 휴양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행과 함께 금강산의 어느 한 마루에 오르시였다.

제모습을 뽐내려고 키돋움하는듯싶은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눈앞에 끝간데 없이 펼쳐져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분계선너머 남녘땅도 한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욱한 운무속에 묻혀있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경치를 저 남녘땅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형제들에게 보여줄수 있을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말씀이였다.

기쁜 일이 하나 있어도, 좋은것을 하나 보아도 자신보다 먼저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남녘겨레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선이 자랑하는 금강산의 자연풍치앞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남녘겨레들에 대한 생각이 깊이 간직되여있었다.

아름다운 금강산을 남녘동포들에게 보여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시던것이였다.

하기에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넓은 길이 열렸을 때 남녘동포들을 제일먼저 불러주신 곳도 바로 금강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0월 북남경제협력의 선구자로 나설 결심을 품고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을 몸소 만나주신 자리에서 금강산관광문제를 한번 맡아해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북남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최대열점지역인 금강산지구에 대한 관광사업승인은 겨레를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광사업초기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성항을 내주어 현대측에서 맡아 해상을 통한 금강산관광에 리용하도록 하는 특전을 베풀어주시고 고성일대의 군사분

계선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륙로관광까지 실현시켜주신것을 비롯하여 관광을 활력있게 추진해나갈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하여 1998년 11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800여명의 관광객을 태운 관광선 《현대금강》호가 동해의 분계선을 헤가르면서 금강산의 고성항에 입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에 받들려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길이 마침내 현실로 펼쳐졌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3달후인 2000년 9월 30일.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의 현대그룹관계자들을 접견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고성항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대에서 시작한 금강산관광을 잘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대책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금강산에서 자기들을 만나주신것만도 과분하기 그지없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니 현대그룹관계자들은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면 천하절승 금강산을 더 많은 남녘동포들이 보게 될수 있을것이라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금강산관광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북남경제협력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실현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뜻을 새기는 현대그룹관계자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금강산을 단순히 관광을 위한 금강산이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온 민족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적조치에 의하여 남녘겨레의 금강산관광길은 활짝 열려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북남경제협력발전을 추동하고 민족적화해와 뉴대를 촉진시키는 활력소로 되였다.

이렇듯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안고 활발히 진행된 금강산관광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들은 황홀경을 자랑하는 기묘한 봉우리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들로 온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것이다.

6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한없이 넓은 포옹력, 대해같은 도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풍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 믿음을 주고 손잡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사람이라면 대를 이어 변함없는 믿음과 정을 주고계신다.

현대일가와의 인연을 귀중히 여기시고

주체100(2011)년 12월.

하늘도 울고 땅도 운 이해의 12월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사상 최대의 슬픔을 안겨주었다. 온 겨레가 당한 대국상은 실로 뼈를 에이는 아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 남녘의 동포들은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역기다림칸들과 식당, 상점 등 곳곳에 설치된 TV를 시청하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착각에 의한 오보가 아닌가.》고 반신반의하며 방송원의 비애에 젖은 보도를 듣고 또 들었다.

인터네트, TV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이 잠바옷차림으로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략력과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영상사진들을 특집하였다.

어느 한 인터네트에 실린 《이 시각 서울의 표정》이라는 글에서는 경향각지에 분향소들을 설치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뵙는 남녘동포들의 비통한 심정을 전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같은 《이런분은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속에 남녘땅에서는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

러 조문단을 무어 평양으로 가야 한다는 열망이 시시각각으로 높아가고있었으며 그 추모열기의 흐름을 타고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과 일행이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자바람으로 조의식장인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았다.

조의식장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추도가가 울리는 속에 각계각층 군중들이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목놓아 곡성을 터치고있었다.

조의물결을 따라 들어가던 현정은일행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앞에 다달았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현대사업을 맡아나선 자기를 여러차례나 만나주시고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현정은은 현대일가에 대한 그토록 다심하고 따뜻한 정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영상이 사무쳐와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200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강산에 와있는 정몽헌회장의 미망인인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과 그의 딸 그리고 현대아산 부회장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몽헌선생은 정말 아까운분이였다고 추억하시면서 그만 불상사가 생기여 가슴이 아픈 그 심정을 이루 다 말할수 없다고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진정이 담긴 그이의 말씀에 현정은은 터져오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담으시고 현정은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당국보다 훨씬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하였다. …

그리시고는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에서 현대가 그 어느 기업보다 모범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첫사랑!

참으로 뜻이 깊게 안겨오는 말씀이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라고 하면 일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중한것으로 일러왔다.

과분하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와의 관계를 북남관계의 첫사랑이라고 의미있게 불러주시지 않는가.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쳐주시고 정주영회장이 남기고 간 현대일가를 민족앞에 떳떳이 내세워주시는 그이앞에 그들은 머리를 수그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깊이깊이 생각하였다. 진정 한번 인연을 맺으면 변함없이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으로 자기들 정주영일가는 북남관계의 첫사랑이 되여 민족앞에, 겨레앞에 우뚝 떠오른것이라고…

현정은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화환을 진정하고 깊이 머리숙여 정중히 조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호상을 서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로 다가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 누구보다도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면서도 오히려 남녘의 동포들을 위로해주시는 그이의 다심한 인정은 현정은의 가슴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현정은은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국상의 비통하고 분망하신 속에서도 현정은과 일행의 체류에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정몽헌선생의 사망 10년이 되는 해에는 정몽헌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

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큰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현정은회장을 비롯한 정몽헌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구두친서까지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모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마음에 새겨안은 현정은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조의문을 올리였고 경모의 마음이 어린 화환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정은의 고결한 마음을 헤아리시여 그에게 사의의 말씀을 보내시였으며 친히 감사편지를 보내시였다.

자자구구 동포애의 정이 넘쳐나는 그이의 감사편지를 현정은은 12월 24일 개성에서 받아안았다.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소행을 온 겨레는 잊지 않을것이다.

세상의 값진 말들을 고르고골라 칭한다 해도 이보다 더 숭고하고 값높은 평가가 어디 있으랴.

현정은은 감사편지의 글줄을 읽고 새기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일가에 돌려주시던 사랑과 정,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의리심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정주영선생과 그 일가가 대를 이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며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따뜻이 품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이 펼쳐놓은 화폭이다.

고결한 의리심을 지니시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이 있었던 주체107(2018)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연회석상에서 남측의 한 성원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홍걸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안부를 물어보신 어머니가 바로 리희호, 남조선의 전 대통령 김대중의 부인이였다.

남조선의 전 대통령이였던 김대중은 야당시절부터 파란곡절을 많이도 겪어온 불우한 정객이였으며 그의 부인 역시 한생을 정치무대에 나선 남편의 뒤바라지를 해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가뒤의 정치가》였다.

그들부부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위해 북녘땅을 밟을 때는 파란만장의 인생곡절을 다 넘긴 황혼기였다.

2000년 6월 13일.

유난히 맑게 개인 평양비행장에 비행기가 착륙하고있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김대중 일행을 태운 비행기였다.

이날 아침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것이다. 이것은 남측성원들이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 한 기분》, 《평생을 가도 잊을수 없는 충격》이라고 저저마다 터놓은것처럼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였다.

한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 김대중은 국방위원장님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고 또 평양시민들이 이렇듯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해주니 감개무량하고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헌헌하게 말씀하시며 그를 차 뒤좌석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자신께서는 그 옆자리에 오르시였다.

환영연도를 지나는 승용차안에서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김대중이 《유신》독재자의 탄압을 받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아직도 다리를 저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있는가고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다심하고 인자하신 그이의 인정에 김대중의 마음은 푹 젖

어드는것만 같았다.

첫 상봉의 날에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김대중과 그의 부인은 서로 갈라져서 사진을 찍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그들부부가 스스로 정한 위치였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김대중을 가운데자리에 세우시고 다시 사진을 찍도록 하시였다. 순간 김대중부부는 물론 남측일행모두가 그이의 한없이 겸허하고 숭고한 풍모에 다시금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번째 회담때에도 관례를 깨시고 김대중의 숙소로 찾아오시였다. 김대중은 송구스러워 현관앞에까지 나와 기다리다가 그이께 《제가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괜찮다고, 몸도 불편하신데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것이 도리이라고 스스럼없이 말씀하시였다. 그 겸허한 말씀에 김대중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력사에 길이 남을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고난 김대중은 수행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참으로 위대한분이시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분이시라고, 같이 모시고 일하고싶은 믿음이 가는분이시라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처럼 열정적이고 기백이 넘치시는분을 뵈오니 북의 전도는 물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된다고, 이번 사변은 전적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공로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어느덧 김대중일행이 평양을 떠날 때가 되였다. 평양의 거리들에는 환송의 파도가 물결쳤다.

차창밖으로 환송군중을 바라보며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김대중대통령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만나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뗐다고, 력대 남조선의 어느 집권자도 엄두를 내지 못한 큰일을 성사시켰으니 감회가 클것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한 인생사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김대통령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높은 평가에 김대중은 이번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직접 만나뵈온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더없는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와서 수고가 많았다고, 이제는 건강을 잘 돌보라고, 건강해야 민족앞에 다진 약속을 잘 리행해나갈수 있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장군님의 따뜻한 바래움속에 비행기승강대에 오른 김대중부부는 나란히 서서 그이께 세번씩이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서울을 방

문하였을 때 김대중의 병문안도 하도록 해주시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며 김대중이 처음으로 평양행을 하였던 그 하늘길을 따라 서울에 특사조의방문단까지 파견해주시고 동포애의 정이 어린 조전과 화환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전에서 김대중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라는 참으로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시의 악화된 북남관계속에서도 친필존함이 모셔진 조전과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내주신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통큰 결단》이라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뜨거운 은정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그처럼 부드럽고 인정많으신 그이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온 행성을 슬픔속에 잠겨놓았다.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추모열기속에서 리희호녀사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 남편의 마음까지 합치여 조의를 표시해야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둘수 없었다.

12월 26일, 리희호녀사는 보수패당의 갖은 압력과 회유를 이겨내고 전 대통령 부인의 자격으로 끝내 평양방문길에 올랐다.

일행과 함께 조의식장에 들어선 리희호녀사는 10여년전 그때 자기들 내외를 극진히 환대해주시며 평생 잊지 못할 은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려깊고 자애에 넘치신 모습이 안겨와 격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로환으로 일어설수 없어 삼륜차를 타고서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형편이였던 그는 차마 그런 모습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뵈올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삼륜차에서 내려선 그는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화환을 진정하고 깊이 머리숙여 정중히 조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간 남편의 마음까지 합쳐 깊이 머리숙여 묵상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리희호녀사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겪고계시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보다 먼저 남녘의 동포들을 위로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서 리희호녀사는 우리가 진짜 한가족이로구만, 이제야 우리일가가 만났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대중부부에게 베풀어주시였던 따뜻한 사랑과 은정그대로 리희호녀사일행의 평양체류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

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조의방문단이 들 숙소를 국가수반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로 정해주시고 특히 리희호녀사에게는 남편이 10여년전에 들었던 방에 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왔을 때와 꼭같이 잘 대우해주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3년후인 2014년 12월 18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조전과 화환을 보내여온 리희호녀사의 고결한 마음을 헤아리시며 친히 감사편지를 보내주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에게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녀사께서 정성들인 추모화환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녀사께서 3년전 국상때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한데 이어 3년상에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것은 국방위원장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데 대해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숭고한 통일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해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체103(2014)년 12월 18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편지를 받아안은 리희호녀사와 그의 가족, 친지들은 활달하신 필체에 비껴있는 위인의 진정에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은 뜨거운 인정미, 따뜻한 정을 느꼈다.

좋은 계절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초청을 받아 그는 다음해 8월에 또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9년 6월 리희호녀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의 령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조화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 심심한 위로말씀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의문에서 리희호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김대중과 리희호의 삶을 온 겨레앞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희호녀사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는 나라와 민족, 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의 생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리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조전과 화환에 어린 숭고한 동포애

고령에 이르러 인생전환을 하여 애국애족의 활동을 벌려나가던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2012년 9월 오랜 병환끝에 9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도 소원하던 민족의 대단결, 죽어서도 버릴수 없다고 하던 조국통일의 꿈, 이 모든 소망을 품에 안은채 그는 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와 관련하여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주체101(2012)년 9월 5일

문선명선생의 한생에 대한 평가와도 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전은 유가족들은 물론 고인의 연고자들과 해내외의 동포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이틀후에는 문선명선생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화환은 평양을 방문한 문선명선생의 아들 문형진에게 정중히 전달되였다.

댕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이 새겨진 화환을 보며 문형진은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가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형제의 의를 맺던 잊지 못할 일, 장군님의 보살핌속에 여러가지의 의의있는 일들을 보란듯이 해내던 나날들이 삼삼히 밟혀왔다. …

평북도 정주태생인 문선명선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고향을 떠나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통일교》의 교주가 되여 반공을 리념으로 내세웠던 사람이였다.

그러던 그가 반공으로부터 련공련북에로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된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의 세계가 뜨겁게 어리여 있다.

1991년 11월.

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그때 문선명선생의 나이는 이미 70고개를 넘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이많은 그가 평양방문에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하시고 일가친척들의 비행장마중으로부터 고향방문, 금강산유람에 이르기까지 체류일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선생의 일행이 공화국을 떠나기 전에는 친히 그를 만나시여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덕망에 감복한 그는 주석님께서 자기의 고향방문신청을 받아들여주시여 평생의 소원을 풀어주신것만도 고맙기 이를데없는데 친히 만나주시기까지 하시니 너무도 감동되여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그이께서 지니신 소탈하신 인품과 인자하신 풍모에 매혹된 문선명선생은 어려움도 잊고 《주석님, 이제부터 내 형님이 되여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에 크게 웃으시며 좋습니다, 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우리 서로 형제가 됩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너무 기뻐 그는 수령님께 우리는 이젠 형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문선명선생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두고 해외교포신문들은 이렇게 전하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세상에 이 명언을 그 어떤 가책도, 그 어떤 가식도 없이 정정당당하게 선언할수 있는 위인은 하늘같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반공으로 얼룩진 그 같은 사람까지 고향땅에 발을 들여

놓게 해주시고 만가지 허물을 탓하지 않고 만나주신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우듯이, 지구가 태양에 끌리우듯이 뭇사람들이 그이께 매혹되여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가는 세상리치를 우리도 알게 되였다.》

정견과 신앙은 달라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한품에 안아 뜨거운 동포애를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위인상에 감복한 문선명선생은 반공에서 련북으로 인생전환을 하였다.

문선명선생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정당은 자기리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합사상을 옹호하였으며 북남교류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1998년 5월 세계평화련합은 《리틀 엔젤스(작은 천사)》예술단(어린이무용단)을 평양에 보내였다.

민족분렬력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북과 남의 학생소년들은 통일의 그날이 온듯 기쁨과 감격에 겨워 서로서로 손을 잡고 부둥켜안으며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북과 남의 어린이들은 한데 어울려 《반갑습니다》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대단결과 통일의 열망을 드높였다.

세계평화련합의 《리틀 엔젤스》예술단은 평양의 봉화예술극장(당시)에서 첫 공연을 진행한데 이어 초대공연을 진행하

였다.

공연출연자들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생활풍속과 동심세계를 민족적인 정서와 색채가 풍기게 잘 반영한 민속무용들과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을 담은 노래들로 엮어진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리틀 엔젤스》예술단의 공연활동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였다.

문선명선생은 북남문화교류뿐만이 아닌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를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여한 문선명선생의 공적을 잊지 않으시고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를 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령의 몸으로 애국애족의 큰뜻을 품고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바지한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민족의 일원이라 하여 누구나 쉽게 바랄수 없고 통일을 위해 공적을 세운것 없이 기대할수 없는 조국통일상.

하기에 사람들은 조국통일상수상자 그 하나의 부름으로써도 그 인간의 삶을 통일을 위한 삶, 민족을 위한 삶으로 아름답게 추억하는것이다.

그 값높은 삶의 언덕에 조국은 문선명선생을 내세워주었다. 문선명선생은 겨레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통일애국인사로 새겨지게 되였다.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고인의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의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에게 수여하는 조국통일상이 아들 문형진에게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선명선생의 서거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부인인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화합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문선명선생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한학자총재를 비롯한 유가족이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며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박상권 세계평화련합 사무총장은 원수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유가족과 세계평화련합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인사들을 언

제나 잊지 않고계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선명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또다시 조전을 보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체104(2015)년 8월 30일

문선명선생에게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동포애, 민족애를 두고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분이시라고 했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다.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품에 안아 사랑을 주고 죽어서도 값높은 삶으로 빛내주는것이 민족의 어버이의 위대한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력사가 전하는 겨레사랑이야기

필 자	김 영 일, 오 보 람
장 정	채 대 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0월 14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0월 18일

ㄱ-1454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12-8